Sports p/22

광주 U대회 준비는 이렇게…

metro®

메트로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제3069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괴물 류현진 존재감 보여라

블랙이글 곡예 비행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이 6일 오후 수원공군기지에서 열린 '공군과 함께 하는 2014 경기항공전'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곡예비행을 하고 있다.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경기항공전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세계 11번째 초음속 전투기인 FA-50 등 74대의 항공기가 참여하고 346점의 공군 무기도 등장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열린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영토 확장 나섰다

15조원대 투자 평택에 최대 반도체 라인 구축

283만㎡, 축구장 369개 규모
내년 착공 2017년 가동계획
15만명 고용창출 효과 기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가 영토를 확장하고 '반도체 왕국'을 구축한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평택의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에 1차로 15조6000억원을 투자해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전체 부지는 80만평이 넘어 기흥사업장과 화성사업장을 모두 더한 만큼의 크기다.

◆ 1단계 투자금으로 최대

삼성전자 평택고덕산업단지는 단일 반도체 시설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총 85.5만평(283만㎡) 규모로 축구장 369개(FIFA 국제 경기장 기준)를 합쳐 놓은 것보다도 크다. 삼성전자는 이 중 23.8만평(79만㎡)을 먼저 활용해 인프라 시설과 첨단 반도체 라인 1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존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중 최대 규모다. 2015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며 2017년 하반기 완공 후 가동에 들어간다. 2017년까지 인프라 조성과 1기 라인 1단계 투자에만 1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내외 반도체 주요 사업장 1단계 투자금으로도 최대다. 이외 나머지 부지는 시황에 따라 추가 활용과 투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직전 최대 투자액은 중국 산시성의 시안 반도체 공장에 삼성전자가 투자한 70억 달러(7조3000억원)로 이번 투자는 이를 배 이상 웃돈다.

삼성전자는 남은 부지를 추가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총 24조원의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삼성전자는 이번 평택 반도체라인 건설로 기흥-화성-평택으로 이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 1위인 삼성전자는 현재 기흥·화성 반도체공장에서 메모리·시스템반도체, 미국 오스틴 공장에서 시스템반도체,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낸드플래시를 양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반도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고용창출과 국가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반도체사업을 책임지는 김기남 반도체총괄 겸 시스템LSI 사장은 "본격 가동되면 총 15만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과 40조원의 생산부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공재광 평택시장,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이번 평택산업단지에 들어서는 반도체 산업단지는 삼성전자 반도체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8면>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2층 버스 내달 시험 운행

수원·남양주·김포 출발 광역노선 투입

경기도는 다음달 광역버스 노선에 2층 버스를 투입해 3주간 시험 운행한다고 6일 밝혔다.

2층 버스를 광역버스 노선에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남양주·김포 등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 노선 중 3개 노선을 선정, 1주일씩 시험 운행한다.

이번에 투입될 2층 버스는 79인승이다. 영국 알렉산더 데니스(ADL)사에서 만든 엔비로(Enviro)500 모델로 길이 12.86m, 폭 2.55m, 높이 4.15m 크기다. 11월 8일 평택항을 통해 들어온다.

정부의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 이후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객 수송 능력이 뛰어난 2층 버스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도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2층 버스 시험 운행을 거쳐 국내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1991년 시청~과천 시내버스 노선에서 2층 버스가 처음 시험 운행됐다. 당시 대우·현대·대림 등 3개 회사가 영국과 독일에서 도입, 서울시에 기증한 87~91인승 3대가 투입됐다.

하지만 이들 버스는 높이가 4~4.2m로 시내 도로 사정에 맞지 않아 실효성 문제로 무산됐다. 현재 국내에는 2층 버스 23대가 있으나 대부분 43인승이며 관광용으로 운행되고 있다.

/조현정기자 jhj@

"개헌 논의, 경제 블랙홀 우려"

박 대통령 "민생 법안·경제 살리기 최우선"…'김영란법' 처리 촉구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의와 관련,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 법안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 안전과 공직 사회 혁신 등 국가 대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국회에서 다시 불 붙은 개헌 논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국회 정상화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이달 말 처리 합의에 대해 "이제 우리 모두 정치적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중심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살리기와 국가 혁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거나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대해 우선 처리를 주문했다.

특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 "지금 여야 양 정당에서 정치 개혁, 정치 혁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이 통과됐을 때 진정한 개혁의 의지와 그 첫 걸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분주한 국감 준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국회 의사과에서 한 관계자가 위원회별 국정감사 현황판에 관련 내용을 적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 호갱 만든 '단통법'

기자 수첩

이 재 영 <경제산업부 기자>

"전국민이 그야말로 '호갱(호구+고객님)'이 돼버렸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 이익을 위해 만든 법이 국민 이익을 해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업계에선 반발하고 있다. 당초 이용자 간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는 실현됐을지 모르지만 최대 핵심인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통신시장은 얼어붙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은 파리만 날리는 실정이다. 한 휴대전화 유통점주는 "이러다간 절반 가량의 휴대전화 유통점은 문을 닫게 생겼다"고 호소할 정도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장기적으로 휴대전화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를 기대했지만 분리공시제 도입 무산으로 인해 이마저도 회의적이다.

사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도 분리공시 제외로 허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의 반발도 당연시 됐고, 분리요금제 시행에 있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분리공시가 무산되면서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말기 할인을 받을지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지 선택해야 한다. 그야말로 어느 것이 유리할지는 복불복이 돼 버린 셈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들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단통법에 기대기에는 어려워졌다"며 "단말기요금·기본요금·정액요금의 대폭 인하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국민을 위한 법이 국민 이익을 저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정부는 시급한 대안마련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정부, 北에 이산상봉 정례화 제의

정부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열릴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상봉 정례화, 생사 전면 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6일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일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를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나 전면적 생사확인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연내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가능성에 대해 "남북한 간에 서로 합의가 된다면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野, "김현 의원 폭행 물의 국민께 죄송"

상임위도 재배치… 김 외통위·문희상 안행위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의원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가슴 속 깊이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5일 비공개 비대위에서 김 의원 문제를 논의한 끝에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문희상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또 김 의원의 상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로 옮겼고, 외통위에 있던 문 위원장을 안행위로 배치했다. 앞서 문 위원장은 "경찰청 국감을 안행위가 진행하는데, 수사를 받는 김 의원이 수사 주체를 감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 의원은 당시 직접적인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해자들은 "김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유족들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北 "선수 부상"… 육군5종 선수권대회 불참

● 북한이 오는 8일 경북 영천에서 열리는 '세계군인 육군 5종 선수권대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국방부가 6일 밝혔다.

국방부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북한이 4일 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를 통해 대회에 참가하지 못 한다고 불참 통보를 해왔다"며 "사유는 선수 부상"이라고 말했다.

한-인도네시아, 한국형 전투기 개발 합의

●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한국형 전투기(KF-X) 공동체계 개발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개발 비용만 8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KF-X 사업은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 장비 등은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 120대를 국내 개발로 양산하는 사업이다.

러셀 "남북 관계 진전 위한 한국 노력 지지"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남북 관계를 강화하고 촉진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6일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등과 면담한 뒤 "(한국 측과) 한일 관계와 황병서 북한 정치총국장의 최근 방문 등 양자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세월호 침몰사고' 최종 수사결과 발표…154명 구속

"과적·조타 미숙 참사 불러"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해 29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과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관련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세월호가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복원성을 잃고 침몰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요원들이 제대로 관제를 하지 않았고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구호조치에 허점을 드러내 인명 피해를 키웠다.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경은 특히 수색구조과정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금지된 구난업체 언딘의 리베로호를 출항토록 하는 등 일부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수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계열사와 교회 자금 1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세월호 사고 이후 5개월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모두 399명이 입건돼 이중 154명이 구속됐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환경위기 시계 '9시27분' 여전히 위험 환경 파괴에 대한 인류생존의 위기감을 시각으로 표현한 환경위기 시계가 올해 한국 시각을 9시27분으로 나타냈다. 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스트리트 가든에서 열린 2014 한국 환경위기시계 공개 행사에서 김창락 롯데백화점 영업1본부장(왼쪽)과 이세중 환경재단 이사장(왼쪽 두번째), 최열 환경재단 대표(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단계별로 0~3시는 '좋음', 3~6시는 '보통', 6~9시는 '나쁨', 9~12시는 '위험'이다. /연합뉴스

서울시내 매년 5만5000여건 '포트홀'

지난해 보수 예산 11억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도로 꺼짐, 이른바 포트홀(Pot Hole)이 서울시내 도로에서만 연 평균 5만5000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포트홀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27만4974건이다. 연 평균 5만4995건꼴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는 1만9125건이 발생했다.

포트홀 보수에 들어간 서울시 예산은 2009년 4억원에서 지난해 11억원으로 급증했다.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1억원이 쓰였다. 포트홀 등 도로 파손에 따른 교통사고는 2009년 이후 2222건이 보고됐다.

도로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배상하기 위해 서울시가 가입한 보험에서 물어준 금액은 같은 기간 22억원으로 조사됐다. /조현정기자 jhj@

LA갱단 출신 교포 국내서 '마약 장사'

미국 LA 지역 갱단 출신의 재미교포들이 국내에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미국에서 들여온 대마를 서울 강남과 이태원 등지에서 판매한 혐의로 성모(23)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과 구매자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에서 대마 1.5kg을 들여와 이 가운데 20g을 판매하고,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대마 100g을 31명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당 가운데 판매책 김모(22) 씨와 성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갱단 조직원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미국 갱단 출신 판매책 2명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현지 갱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교포 2세나 유학생에게 마약을 팔았다"고 전했다. /윤다혜기자

노끈으로 뚫린 디지털 도어록

고급 아파트만 골라 5억원 턴 일당 검거

포장용 노끈으로 디지털 도어록을 열고 귀금속을 훔쳐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아파트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박모(37) 씨와 이모(37) 씨 등 3명을 6일 구속했다.

박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시내 고급 아파트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록을 해제하는 수법으로 침입해 모두 47차례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어록 내부로 노끈을 밀어 넣은 뒤 개폐장치를 건드려 출입문을 손쉽게 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압수한 범행 노트에 부산시내 100여 곳의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으로 미뤄 여죄가 많을 것으로 보고 계속 조사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ydh@

미국의 존 오키프(왼쪽) 박사와 부부 과학자인 노르웨이 마이브리트 모서(가운데)·에드바르드 모서(오른쪽) 박사 등 3명이 '2014 노벨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AFP 연합뉴스

노벨생리의학상, 존 오키프 등 3명 공동수상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미국의 존 오키프(75) 박사와 부부 과학자인 노르웨이 마이브리트 모서(50·여), 에드바르드 모서(51) 박사 등 3명이 공동 선정됐다.

스웨덴 카롤린스카의대 노벨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뇌세포 내에서 '몸 안의 GPS'라고 할 수 있는 위치 정보 처리 세포들을 발견, 사람들이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는 원리를 규명한 세명의 과학자를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의 이 연구 성과는 더 높은 수준의 인지기능을 세포 수준에서 규명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며 오키프 박사가 수상 업적에 절반을 기여하고 모서 부부가 나머지 절반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의 연구가 수백년간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을 사로잡아온 문제, 즉 '뇌가 어떻게 주변 공간의 지도를 만들고 어떻게 복잡한 환경에서 길을 찾아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오키프 박사에게 상금 400만 크로네(약 55만 달러), 모세르 부부에게 400만 크로네가 각각 주어진다.

올해 생리의학상 수상자 후보에 올랐던 한국계 캐나다인 찰스 리(45·한국명 이장철) 서울대 초빙교수는 아쉽게 수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찰스 리 교수는 사람의 유전체 구조 변이를 처음으로 밝혀내 생리의학상의 유력한 후보로 점쳐진 바 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오은정 대표가 학생이 그린 그림을 보며 상담을 하고 있다. /영 렘브란트 제공

아이 그림만 봐도 수능 적성 안다

영 렘브란트 오은정 대표…"창의력·학습력 키울 수 있어"

최근 교육시장에 새로운 아이템이 인기를 얻고 있다. 어린이가 직접 그린 작품을 매개로 창의력은 물론 논리·학습능력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의 이름을 딴 글로벌 아동미술학원 '영 렘브란트'의 이야기다. 이곳의 오은정(40·사진) 대표로부터 새로운 교육시장의 트렌드를 들어봤다.

-그림에서 어린이가 발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다.

아이들이 낙서를 하는 것 조차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 즉 유아기에 인지능력이 생기고 난 뒤 스스로 생각하는 부문을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 나타나는 크기, 형태, 공간의 활용 등을 통해 아이의 인지능력, 사고력, 논리력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아이의 잠재력, 그 중에서도 학습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각각의 어린이에게 맞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드로잉 파워지수'를 개발했다.

-그림만으로 아이의 잠재력을 알 수 있다는 게 와닿지 않는다.

어린이가 그린 작품을 보면▲종이를 활용하는 공간감 ▲사물을 바라보는 관찰력 ▲시각적 요소를 구현하는 표현력 ▲자신만의 스토리로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발상의 창의력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학습의 기본영역인 언어지능, 수 지능, 공간지각 지능, 논리 지능,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영역과 밀접한 상호연관관계에 있다.

-디자이너 출신인데 어린이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 미술 교육을 받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며 가장 많이 부딪친 부분이 바로 창의력과 아이디어였다. 사고가 막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기가 어려웠다. 결국 디자이너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 돌아와 아이를 낳고 한국의 교육 환경을 알면서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창의적인 미술 교육을 받는다면 더 많은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던 중 미국의 교육 박람회에서 영 렘브란트를 접했고 2006년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 국내에 가져왔다.

-미술에 관심이 없는 어린이는 교육을 받지 못하나.

어른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글, 그림 외에도 다양하지만 어린이가 생각을 드러내는 첫 수단은 미술이다. 미술에 관심이 없는 아동일지라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다.

영 렘브란트 미술 교육의 목표는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 그것을 그려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드로잉 지수 역시 '얼마나 잘 그렸는가'가 아닌 '생각을 어떻게 구체화했는가'에 초점을 둔다.

즉 드로잉 파워지수는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중점으로 인지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평소 미술에 흥미가 없는 어린이도 측정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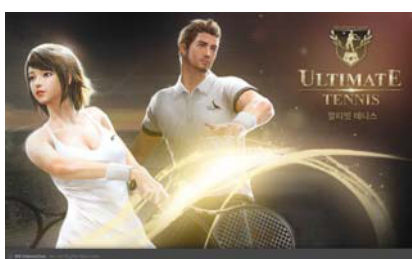
-교육료가 비쌀 것 같다.

가맹점을 개설하는 지역 상권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가맹점 별 교육료는 차이가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서바이벌게임-얼티밋 테니스

게임인재단 '힘내라! 게임인상' 수상

재단법인 게임인재단은 아크베어즈의 '서바이벌게임'과 나인엠 인터랙티브의 '얼티밋 테니스'(사진)를 '제6회 힘내라! 게임인(人)상' 수상작으로 뽑았다고 6일 밝혔다.

'서바이벌 게임'은 10명이 무인도에 모여 최후의 승자를 겨루는 게임이다. '리그 오브 레전드' '도타2' '사이퍼즈' 등으로 익숙한 MOBA 장르를 모바일에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템을 수집·제작하기 위해 게임의 배경이 되는 무인도 내의 22개의 지역을 전략적으로 이동하며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정통 테니스 게임인 '얼티밋 테니스'는 버튼의 타이밍을 이용한 다양하고 쉬운 조작법, 스포츠의 기본에 충실한 게임성 등이 매력적이다. 모바일 게임 환경에 맞춰 가로 세로 플레이 모드를 모두 채택해 마치 실제 테니스 경기를 관람하는듯한 현장감을 안겨준다.

이시우 게임인재단 사무국장은 "응모작의 수준과 다양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개발사가 각자의 개성에 맞춰 게임 장르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전략을 택함에 따라 각각의 장르가 높은 완성도를 갖추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번 게임인상 시상식은 7일 경기도 판교 게임인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국명기자 kmlee@

대성산업 '초심'으로 돌아간다

건설 등 버리고 에너지 집중…1조5천억 규모 매각

서울 신도림 티큐브시티 건설 등에 따른 막대한 차입금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대성산업이 자산매각과 유상증자를 통해 2015년 말까지 1조5000여억원을 확보하고 에너지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정민 대성산업 상무이사는 6일 "경기 용인시 기흥 역세권 부지, 디큐브백화점, 용인시 남곡 2지구 등을 순차적으로 매각해 올해 1조2675억원, 내년 3300억원을 확보해 부채 비율을 200% 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1947년 연탄 제조·유통, 탄광 개발을 시작한 대성은 1960~70년대 GS칼텍스 석유가스 유통 대리점 영업과 해외 유전가스 개발, 열병합발전 사업 등으로 사세를 확장하며 가파르게 성장했다.

김정민 대성산업 상무이사가 6일 대성산업 자산매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건설사업과 2000년대 유통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경기 침체로 2011년 부채 규모가 2조3000억원에 달해 부도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성산업가스의 지분 60%를 골드만삭스PIA에 매각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의 토지, 건물 등 상당수의 자산을 처분해 부채 규모를 줄였다. 이어 최근 7대 1의 무상감자와 2000억원 대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공시해 업계 이목을 모았다.

김 상무는 "앞으로 대성산업은 열병합발전의 DS파워, 해외 석유가스 탐사, 대성쎌틱가스보일러 등 에너지산업과 디큐브백화점 운영 등 유통 분야에 집중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부채 규모를 대폭 줄이면 내년 하반기부터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현재 손실이 난 것은 경영 실패라기보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신사업 부진 등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라 기존 사업에서 인원을 줄일 이유가 없다.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지양하고, 건설·유통 사업 분리로 자연스럽게 (인원을) 줄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준기자 mjkim@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HongKong | metro Brazil | metro Maxico | metro France

Transporte

PM nos ônibus. Diante de paralisação de rodoviários, que deixou

버스 내 군경 배치 '치안 강화'

브라질 그랑지 비토리아 지역의 대중 버스 치안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이스피리투 산투스 공공안전부는 그랑지 비토리아 지역 버스 안에 군경을 배치하고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버튼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드레 가르시아 공공안전부 장관은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를 피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절도와 살인 발생률을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Harry Potter

해리포터 책 3097권 '광팬' 기네스북에

멕시코의 해리포터 '광팬'이 기네스북에 올랐다. 화제의 주인공은 실바 바르가스(37). 변호사인 그는 '세계에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가장 많이 수집한 사람'으로 선정, 지난달 29일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다. 그가 집에 쌓아 둔 해리포터 책의 권수는 3097권에 달한다. 책 이외에도 각국 영화 DVD와 마술사 망토, 빗자루까지 살뜰히 모았다. 바르가스가 해리포터에 빠진 것은 14년 전이다. 책을 읽고 영화를 챙겨보며 상상의 세계에 매료됐는 것이다.

우주여행 티켓 9000만원!

SXC 아시아 관광상품 인기 폭발… 비행 고도 60㎞·이착륙 1시간

우주 여행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미국 등지에서 민간우주관광기업이 등장하면서 우주 관광 시대가 열렸다. 최근 네덜란드의 한 우주 여행사가 홍콩에서 아시아 지부를 세운 뒤 아시아 각지에서도 우주여행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지난 6월 네덜란드 우주여행회사 'SXC'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본부를 두고 있는 우주항공사 XCOR 에어로스페이스와 합병했다. 이후 SXC는 중국 시장에 진출, 홍콩에 아시아 지부를 설립했다. SXC 아시아 지부의 덩웨이센 대표는 "XCOR이 개발한 신형 저궤도 우주선 링스(Lynx) 1호가 도입되면 이르면 2015년 말 우주여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달간 SXC 아시아는 대규모 홍보 행사를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이미 두 명의 '우주 용사'가 9만5000 달러(약 9000만 원)에 달하는 우주여행 티켓을 구매했다.

덩웨이센은 "각계 각층의 인사와 명함을 교환하며 우주여행을 소개했는 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다만 모두 안전 문제를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우주선은 여러 차례 안전 테스트를 거쳤다"면서 "안전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우주선은 과학적인 계산에 따라 황금비율로 제작된다. 최대 2명이 탑승 가능하고 비행 고도는 60㎞, 하루에 4바퀴 비행이 가능하다. 여정은 이륙부터 착륙까지 1시간, 5~6분 우주공간에 머무른다"고 설명했다.

한 우주 전문가는 이와 관련, "60㎞ 상공 비행은 저궤도에 진입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우주 여행이 아니라 근거리 우주 체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SXC 아시아는 지난달 30일 마카오의 카지노 리조트 시티 오브 드림스에서 추첨으로 한달에 1장, 총 3장의 22만 달러(약 2억3000만 원) 최고가 티켓을 VIP 고객에게 증정하는 행사를 열었다. 홍콩 인기 여가수 덩쯔치는 이 행사에서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덩쯔치도 훈련을 받은 뒤 앞으로 우주여행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조선미기자

udiant toulousain rallie T
top

佛 툴루즈-일본 히치하이킹 눈길

프랑스에서 한 대학생이 히치하이킹으로 일본까지 가는 이색 여행에 도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툴루즈에 사는 23세 대학생 디미트리 베르제는 특별한 배낭 여행을 기획했다. 히치하이킹으로 프랑스에서 일본까지 가는 여행이다. 이미 툴루즈-오슬로, 툴루즈-모스크바를 히치하이킹으로 여행한 경험이 있는 그는 이번엔 1만8000㎞에 달하는 대장정을 기획하게 됐다.

여행의 주된 목적은 '만남'이다. 길 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게 주된 목적인 셈이다. 여행 경비는 매달 500 유로(한화 약 66만원)로 책정했다. 예상 기간은 두달 반이며 숙박의 경우 카우치서핑(Couchsurfing) 앱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계획이다.

디미트리는 "지금껏 배낭 여행을 하면서 165개 종류의 차량을 이용했다. 만약 히치하이킹을 할 때 안좋은 예감이 들면 그 차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껏 사고가 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여행 중 추억을 떠올리며 "러시아에서 트럭을 얻어 탄 적이 있었다. 그때 태워준 아저씨에게 전화가 왔다. 아내가 곧 출산을 할 거란 내용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저씨는 속도를 냈고 우린 여행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미트리는 일본에 도착한 뒤 비행기를 타고 툴루즈로 돌아올 계획이다. 다음 여행에 대해 그는 "몇가지 생각이 있다. 남미나 터키·인도를 히치하이킹으로 여행하고 싶다. 또 캐나다를 1년동안 히치하이킹으로 여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피에르 카롱 기자·정리=정주리 인턴기자

쉬운 수능 예고… 오답노트에 집중해야

지난 3일에 치러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연합뉴스

수능 D-30…수준별 마무리 학습전략

6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3일)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시기는 수능 시험을 최종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수험생들은 남은 시간에 새로운 것을 더 학습해 점수를 대폭 향상하는 계획보다 지금까지 해온 영역별 학습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 연구실장은 "2015학년도 수능은 쉽게 출제될 전망인 만큼 한 문제의 실수 때문에 등급이 내려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수험생들은 그동안 정리해왔던 오답노트를 점검해 약점을 보완하고 실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실장은 이와함께 수험생들이 효과적인 입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수능 D-30일 수준별 마무리 전략'을 제시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고난도 위주 문제풀이

◆상위권

국어영역은 전반적인 난이도가 쉽게 출제되는 상황을 고려해 고난도 문항의 문제 풀이 감각 유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고난도 문항은 독서(비문학 읽기) 분야에서 출제되는 편이다.

수학영역은 신 유형이나 고난도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영어영역은 빈칸 추론, 어휘·어법 문제, 논리 추론 문제 등 어려운 유형을 중심으로 사고력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고난도 문항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학습 내용과 관련해 제시되는 표, 그래프 등의 자료와 실험, 탐구 내용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자주 틀린 문항 공략을

◆중위권

국어영역은 평소 본인이 자주 틀리는 제재나 문제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보충·심화하기 위한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한다.

수학영역은 끝까지 차분하게 계산을 해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수능 기출 문제집을 함께 풀면서 개념의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영어영역은 연계 출제되는 문항 대부분이 지문을 활용해 유형을 변형하기 때문에, 지문의 핵심 내용이나 흐름을 기억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기출 문항의 자료와 분석 유형을 충분하게 익혀 두는 것이 좋다.

EBS 교재 복습 힘써야

◆하위권

국어영역은 올해 수능 연계 대상 EBS 교재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야 한다. 특히, EBS 교재에 수록된 실전형 문제를 실제 시험과 동일한 상황을 설정해 수능 전날까지 지속적으로 풀어 보는 연습을 하면 좋다.

수학영역은 기출 문제와 두 차례의 모의평가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다. 교과서나 EBS 교재를 통해 중요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영어영역은 올해 실시된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유형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각 단원별 교과 개념의 이해 능력을 키워야 한다.

서울여대, 현원영 시조시인에 명예박사

서울여대는 최근 교내 바롬인성교육관에서 송운 현원영(87) 시조시인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학교 측은 현 시인이 대학 교수로서 지식 발전에 공헌함은 물론, 미국 내 교포사회의 정체성 확립과 세계 결식아동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점, 국내외 시조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점 등을 공로로 인정해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 시인은 1995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머린 대학에서 교수를 지냈고, 1998년부터는 전 세계 결식아동을 돕는 국제단체인 '글로벌어린이재단'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여대는 1일 교내 바롬인성교육관에서 송운 현원영 시조시인(왼쪽 첫번째)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서울여대 제공

“매일 아침, 집에서 스케일링하세요”

공기방울 음파진동으로 치아세정과 잇몸마사지를 동시에!

아쿠아픽 소닉펄스 음파칫솔 AQ110

빛나는 화이트닝, 상쾌한 딥클렌징!

3중 브러시로 닿지 않는 곳까지 깨끗하게~ 아쿠아픽 소닉펄스 음파칫솔은 입안에 남아있는 냄새와 이물질은 물론, 세균까지 잡아주는 치아건강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음파 전동칫솔도 아쿠아픽이 만들면 차원이 다릅니다!

음파칫솔이란? 초미세 공기방울 음파진동으로 미세한 물을 분사하여 치아와 잇몸을 세정하는 것으로 일반 수동칫솔이나 전동칫솔에 비해 5배 정도 우수한 프라그 제거효과가 있으며, 잇몸 마사지 기능으로 잇몸건강과 치아 미백에도 도움을 준다

특징 및 사양 ■분당 최대 31,000번의 칫솔모 움직임 ■3가지 모드의 브러싱 기능(Normal, Soft, Pulse) ■30초 간격의 잠시 멈춤 기능 ■미국 듀폰社 고급 칫솔모 사용 ■2분 자동 타이머 기능 ■UV칫솔 살균기 장착 : 대장균, 살로렐라균 99.9%, H1N1 바이러스 96.8% 살균 효과 ■3가지 종류의 차별화된 기능성 브러시헤드(Slim Sonic, Professional, Interdental) ■Free Voltage 전 세계 호환 가능 전압

■제품구성 : 손잡이(1ea) + UV 살균충전기(1ea) + 브러시헤드(3ea)

남녀노소 누구나~ 용도에 맞게 설계된 맞춤형 최고급 브러시헤드!

■슬림 소닉 브러시 헤드(Slim Sonic Brush Head)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칫솔모로 치아와 잇몸을 자극 없이 세정할 수 있으며 듀폰사의 최고급 칫솔모는 치아 표면을 부드럽게 광택을 내주어 치아를 더 하얗게 만들어 드립니다.

■프로페셔널 브러시 헤드(Professional Brush Head) 부드러운 재질의 브러시 헤드는 치아 표면의 에나멜을 보호해 주고 극세모와 미세모로 구성된 칫솔모는 고르지 않은 치아표면과 치아 사이의 깊은 곳까지 프라그를 말끔하게 제거해 줍니다.

■인터덴탈 브러시 헤드(Interdental Brush Head) 브라켓, 크라운, 부정 교합 치아의 세정을 위해 특별 제작된 형태의 칫솔모로써 일반 칫솔로는 힘든 미세한 부문까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케어해 드립니다.

※무상 A/S는 구매 후, 12개월동안 가능하며,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100% 환불 보장해 드립니다.

| 출시기념 특별 할인판매 174,000원 ➡ 148,000원(49,333X3 • 카드 무이자 3개월) | 무료 주문전화 080-605-7000

market index <6일>

 코스피 1968.39 (-7.77)

 코스닥 566.27 (-3.57)

 금리(국고채 3년) 2.26 (+0.01)

 환율(원·달러) 1068.50 (+7.60)

뉴스&뉴스

백향과 맛보세요 6일 서울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열대 과일 백향과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지역 체납액 전국 1위

● 서울 강남지역이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이후 체납 세금을 내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2013년 세무서별 체납발생액 최고·최저 10곳'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초세무서의 체납액이 87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세무서가 6845억원, 역삼세무서가 6831억원으로 2, 3위에 오르며 강남지역 세무서 세 곳이 체납액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또 반포세무서가 5650억원으로 9위, 강남세무서가 5393억원으로 10위를 각각 차지하는 등 전국 세무서 가운데 체납액 상위 10곳의 절반인 5곳이 서울 강남에 있다.

/김민지기자 minji@

'모두의 마블' 인도네시아 1위

●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이 인도네시아 정식 버전이 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 모바일 게임 양대 마켓인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인기 1위에 등극했다.

넷마블게임즈는 모바일 캐주얼 보드게임 '모두의 마블'이 게임성과 입소문만으로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넷마블은 "인도네시아 언어가 적용되지 않은 태국판 '모두의 마블'을 경험한 이용자들의 입소문만으로 현지 최고 매출 2위까지 등극했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G워치R' 스마트워치 첫 주자 선언

LG전자, 14일 출시… KT서 7일부터 예약판매
삼성 '기어S', 소니 '스마트워치3' 연내 출시 예정

/LG전자 제공

LG전자가 'LG G워치R'을 국내에 선보이며 하반기 출시될 스마트워치 중 첫 스타트를 끊는다. 이어 삼성전자와 소니도 스마트워치 제품을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전략 스마트워치 LG G워치R을 오는 14일 국내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IFA 2014'에서 처음 공개된 이 제품은 스마트워치 최초로 원형 플라스틱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풀 서클(full-circle) 디자인을 적용해 화제가 됐다. 또 메탈바디, 천연가죽 소재 스트랩으로 시계 본연의 느낌을 살렸다.

이 제품은 구글이 웨어러블 기기를 겨냥해 선보인 안드로이드웨어를 탑재해 안드로이드 4.3 버전 이상의 모든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다. 또 ▲24시간 내내 화면이 꺼지지 않는 올웨이즈 온 기능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심박센서 ▲별도 화면 조작 없이 음성명령이 가능한 구글 나우서비스 등을 갖췄다.

공식 출시에 앞서 KT는 7일부터 올레샵과 앱을 통해 단독으로 G워치R의 예약판매를 실시한다. 이동통신칩을 내장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요금제 가입은 필요하지 않지만 스마트폰과 연동해 사용하는 '액세서리'기 때문에 KT를 통해서 판매한다고 LG전자 측은 설명했다. 소비자 가격은 35만2000원으로 '올레샵 내 액세서리 샵'이나 앱에서 쿠폰을 적용해 7%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KT는 예약구매 고객 전원에게 5만9000원 상당의 크립스 NB-K2 블루투스 넥밴드를 무료로 제공한다.

삼성전자의 '기어S'는 스마트폰 최초로 모뎀을 탑재해 3G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통신사를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스마트폰과 연동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어S만으로 직접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자체적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기어S 사용자들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이동통신사들이 관련 요금제를 준비하는 등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아직 정확한 출시일과 관련 요금제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르면 10월 중 국내 소비자가 제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니의 스마트워치3 역시 연내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체 운영체제를 탑재한 이전 버전과 달리 이번 제품은 안드로이드웨어 플랫폼이 적용됐다. 이전 제품들도 안드로이드 기기와 어느 정도 호환되기는 했지만 신제품은 보다 더 완벽하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연동돼 국내 시장에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품은 시리즈의 기존 제품처럼 소니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바쁜 점심시간? 줄서지 마세요!" SK플래닛이 스마트폰으로 미리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선 주문 서비스 '시럽 오더(Syrup Order)'를 6일 출시했다. 시럽 오더는 사용자 주변의 제휴매장을 보여주고 매장의 상세 메뉴를 제공해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맞춤형 주문과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다. /SK플래닛 제공

16개 주요기업, 내년까지 28조 투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16개 주요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28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국내 16개 주요 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투자계획 조사 결과를 소개한 뒤 적극적인 투자 동참을 권유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 확장적 예산 편성 등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일부기업에서도 대규모 투자에 착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한전 등 일부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분위기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면서 "다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수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엔저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엔저 움직임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대일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환변동보험' 및 '무역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SK에너지, LG화학 등 16개 기업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중 새로 착수할 투자 사업이 총 13건, 규모는 2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년을 넘겨 시작할 투자사업까지 포함하면 약 77조원 규모다.

산업부는 이 같은 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기업과 '일대일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밀착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수출기업 준법 리스크 우려 커져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늘면서 준법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발표한 '국내기업의 해외 준법리스크 대응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사업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도 담합,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정부가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상한액을 개인 3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법인 1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올리고 징역형도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법의 적용이 강화되면서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기업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1995년부터 최근까지 법위반으로 1000만 달러 이상 벌금이 부과된 117건 중 101건이 외국기업이며 이중 아시아기업이 받은 벌금 총액은 55.9억 달러로 전체의 61.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반독점법 강화 이전인 1995~2004년까지 아시아기업이 부과받은 벌금금액은 전체의 18%에 그쳤으나 2005~2014년까지는 전체의 76.9%로 그 비중이 확대됐다.

한국은 12.6억 달러로 일본(33.5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박성훈기자 zen@

외환시장 심상찮다

전문가 "强달러 기조 1080원대 까지"… 당국 모니터링 강화

issue&view

일중 변동폭 7개월만에 최대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외환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글로벌 달러화 강세 기조가 더욱 심화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80원대까지 도달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달러화 강세 여파로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원·달러 환율의 하루 중 변동폭(일중 최고가-일중 최저가)은 평균 4.9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의 5.4원 이후 7개월만의 최대 폭으로, 외환시장이 그만큼 안정적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올해 일중 변동폭은 6월 2.7원을 저점으로 7월 3.9원, 8월 4.4원 등으로 증가해왔다. 3분기 중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률도 평균 0.30%로, 2분기의 0.24%보다 높아졌다. 변동성 확대는 지난 7월 이후 미국 달러화가 글로벌 강세 기조를 보이면서 확대됐다.

최근 달러화 강세는 선진국 중앙은행 간의 통화정책 차이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은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방했던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하고, 적절한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거침없는 달러화 강세 추세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시장에서는 "적어도 향후 1년 가량은 현재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달러화 강세 흐름이 예상보다 강력하다"면서 "원·달러 환율은 이번달 1080원대까지 오르고서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경팔 외환선물 시장분석팀장은 이달 원·달러 환율 목표치를 1084.7원으로 제시하면서 "미 연준이 실제로 언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기 전까지 달러화는 강세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만약 10월에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거기서 원·달러상승 흐름이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국도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섰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앞으로도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달러화 강세의 여파로 외환보유액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644억1000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31억3000만 달러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2012년 5월(-59억7000만 달러)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차세대 시스템' 동부화재는 6일 고객서비스와 업무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한 차세대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부화재 제공

교보라이프플래닛 생존 가능할까?

시장점유율 미미 VS 장기적 재정 안정 엇갈려

국내 최초 인터넷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영업개시 1년 째를 맞았지만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생보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 통계에 따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수입보험료는 영업을 개시한 지난해 12월 7600만원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들어 지난 7월에는 2억200만원을 기록해 누적 수보액 10억300만원을 기록했다.

7월까지 보유계약액은 1477억4100만원을 기록해 보유계약대비효력상실(계약해지) 비율은 1.03%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25개 생보사 전체의 해지비율인 6.06%보다 크게 낮다.

업계에서는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해 성공을 점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7월 말까지 이 회사가 기록한 신계약액도 1185억원으로 25개 생보사 전체 신계약(226조875억원)의 0.05%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교보라이프플래닛의 더딘 성장세에 대해 기존 대면 채널에 익숙한 보험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론도 만만찮다. 인터넷 보험의 경우 기존보다 해지율이 낮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보험 계약자가 직접 가입하기 때문에 민원상담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점을 내세우고 있다.

김성수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마케팅 담당 상무는 "인터넷 생명보험은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보험사도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적다"며"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보험산업이 추구해야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아빠와 함께하는 힐링캠핑' KB국민카드는 6일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가족 단위로 캠핑을 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는 '2014 엔돌핑 아빠와 함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양일간 경기도 대부도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캠핑 장비와 각종 식재료가 무료 제공돼 캠핑 경험과 장비가 없어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제공

"주식투자 최고 고수를 찾아라"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봇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대거 다양한 실전대회 이벤트를 마련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과거 주식 투자에만 국한되던 대회에서 벗어나 선물옵션과 해외선물, 시스템 매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투자자가 실력을 발휘할 대회를 준비한다.

소액으로 참가할 수 있는 대회도 열린다.

대신증권은 투자대회 1등 상금 5000만원 등 2억1250만원의 상금을 내건 '불스(Bulls) 투자대회' 참가자를 다음달 21일까지 모집한다.

대회는 이달 13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8주간 열린다.

대신증권은 꿈에 대한 사연을 보낸 9명에게 한 명당 5000만원의 투자금을 지원해주고 수익금 전액을 상금으로 주는 '이루어드림(Dream)프로젝트'도 진행한다.

키움증권은 수익률 1위 상금 5000만원 등 1억6000만원의 상금을 놓고 실전투자대회 '2014 키움영웅전'을 개최한다.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6주간 주식리그와 선물옵션리그로 나뉘어 열린다.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키움·현대증권 등 4개 증권사는 공동으로 시카고 선물거래소(CME) 해외선물 상품으로 수익률 경쟁을 벌이는 '2014 해외선물 빅 매치(Big Match)' 실전투자대회를 연다.

상금 1억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다음달 21일까지 열린다.

이밖에 신한금융투자는 '트레이드스테이션 리더스 클럽', 이트레이드증권은 선물옵션 투자대회 '전설의 트레이더 시즌2'를 각각 진행한다.

/김현정기자 hjkim1@

비자·마스터카드 로열티 2041억

국내사용 수수료 4배 넘어

국내 카드사가 비자와 마스터 등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제브랜드카드 발급 및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국내 카드사들이 이들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2041억원에 달했다.

카드 명칭 사용 명목으로 지급된 '로열티' 수수료가 2000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결제망과 상관없이 국내에서만 사용했는데도 국내 카드사들은 이들 카드사에 10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급했다.

실제 '비자'와 '마스터'가 찍힌 해외겸용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 낸 수수료는 12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해외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295억원의 수수료가 지급됐고, 여기에 카드발급 유지 수수료 명목으로도 501억원이 지급됐다.

현재 비자·마스터 등과 제휴를 맺은 카드사들은 국내 사용에 대해서는 0.04%, 해외 사용에 대해서는 각각 0.2%와 0.204%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마스터카드에는 국내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0.01%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또 이들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목으로 카드 1장당 0.2~1달러의 카드유지발급수수료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국내 사용으로 내는 수수료가 해외사용으로 내는 수수료보다 매년 4배 이상으로 월등히 높은 수치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허리띠 졸라맨 증권사 온기 감돈다

KDB대우·우리투자 등 '채권'효자 덕 3분기 순익 대폭 개선

올해 3분기 증권업계는 수년간 업황 침체로 거센 구조조정을 단행한 효과를 일부 거둘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채권운용 실적이 호조를 보인 영향도 작용했다.

6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곳 이상의 기관이 올해 3분기 추정치를 내놓은 증권사는 이날 현재 총 6개다.

올 3분기 순이익(연결기준) 추정치를 보면 KDB대우증권이 353억6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하고 우리투자증권 351억7100만원(174.73%), 한국금융지주 478억9000만원(37.28%), 미래에셋증권 429억5100만원(0.29%) 등이다.

삼성증권의 순익도 1년 전 대비 708.56% 급증하고 키움증권만 173억2800만원으로 9.53% 감소할 전망이다.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순익 지표에 청신호가 켜졌다. 수년간 수익 저하를 겪으며 희망퇴직, 지점 통·폐합 등의 비용 감축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반영됐다.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분기 희망퇴직에 따른 판관비가 각각 465억원, 654억원 반영되면서 적자로 돌아섰지만 3분기에는 구조조정 부담을 털어내면서 기저효과가 더 커질 전망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이에 더해 지난 7월 삼성자산운용 매각으로 인한 처분익 1200억원(세후기준)까지 순익에 반영되는 점이 기대요인이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사 수익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비용감축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3분기 영업익(연결기준) 추정치는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각각 624억3300만원, 508억8000만원으로 2분기 대비 흑자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움증권도 229억5000만원으로 5.81% 늘어날 전망이다.

이 기간 영업익이 줄어드는 곳은 KDB대우증권 504억7100만원(-21.49%)과 한국금융지주 688억5000만원(-12.68%), 미래에셋증권 495억3400만원(-5.11%) 등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채권금리가 동반 하락하면서 채권보유액을 늘린 대형 증권사들에 화색이 돌았다.

국내 주요 증권사 15곳의 채권보유금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105조원에 육박했다. 우리투자증권이 14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DB대우증권(14조5000억원), 한국투자증권(12조2000억원), 삼성증권(11조8000억원), 미래에셋증권(9조3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증권사의 보유 채권 평가이익이 상승하면서 수익 개선을 이끈다.

또 증시 거래대금이 바닥을 치고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브로커리지 쪽 수익이 회복의 물꼬를 튼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대표적인 브로커리지 중심의 키움증권 3분기 영업익이 전 분기보다 늘어난 점이 브로커리지 개선을 잘 보여준다.

박선호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실제 하루평균거래대금이 지난 7월 6조원으로 회복한 뒤 8월 6조3000억원, 9월 6조4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신용융자 잔고도 5조3000억원으로 지난 2011년 8월 이후 최고치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증권업종의 추가 이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3분기 주식 거래대금이 1년 전보다 13% 늘었고 전 분기 대비로도 17% 늘어나는 등 브로커리지 부문은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사 실적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세적인 개선 국면에 들어가려면 수익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유명 레스토랑 메뉴를 반값에"

현대카드 '고메위크 15' 진행

현대카드는 6일 유명 레스토랑 특별 메뉴를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현대카드 고메위크(Gourmet Week) 1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현대카드 플래티넘 이상급 회원을 대상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서울에서는 가로수길, 청담, 서래마을, 여의도, 광화문 등에 위치한 90여 곳의 레스토랑이, 부산에서는 해운대, 달맞이길, 마린시티, 센텀시티, 서면 등에 위치한 30여 곳의 유명 레스토랑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고메위크에서는 현대카드가 새롭게 선보이는 신개념 와인인 잇와인(it Win)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한편 고메위크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해당 레스토랑 전화 예약이나 '현대카드 마이메뉴(MY MENU)'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현대카드 고메위크는 카드의 기본 혜택에 정기적으로 파격적인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현대카드의 대표 행사"라며 "행사가 거듭될수록 고메위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대카드는 새로운 레스토랑을 발굴하고, 고메위크만을 위한 신메뉴를 개발하는 등 고객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고메위크를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우리 CAR 행복대출'출시 우리은행은 6일 자동차 구입 특화대출인 '우리 CAR 행복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차의 경우 최대 7000만원, 중고차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제공

"코드나인 콘서트, 이번엔 어디?"

신한카드, 해운대서 인디음악 소통

지난 주말,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 열리고 있는 해운대에 때아닌 인디음악이 퍼졌다.

모두 1만2000여명의 관중을 불러모은 이곳은 신한카드의 두번째 코드나인(Code9) 콘서트 현장이었다. 지난 8월 서울 남산에서 열렸던 코드나인 콘서트가 이번엔 해운대로 자리를 옮긴 것.

6일 신한카드는 문화 마케팅 프로젝트 '그레이트(GREAT) 시리즈'의 일환으로 '부산국제영화제 신한카드 코드나인(Code 9) 콘서트(이하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양일간 해운대 비프빌리지(BIFF Village)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이번 콘서트는 스탠딩 파티 형식으로, 별도 입장권이 없어도 방문한 사람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꾸려졌다.

코드나인콘서트에서 장미여관이 공연을 하고 있다. /신한카드 제공

콘서트 첫날에는 장미여관, 델리스파이스, 아프로디노, 에브리싱글데이, 유즈드카세트 등이 무대에 섰다. 둘째 날은 크라잉넛, 딕펑스, 몽니, 킹스턴루디스카, 리플렉스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쇼를 펼쳤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신한카드 코드나인의 두번째 콘서트로, 자유로운 실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내는 인디 문화의 특성을 살리고자 마련됐다.

실제 공연 또한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돼 기존 신한카드가 진행해 온 공연마케팅 방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콘서트 홍보방식 역시 기존 매스미디어 위주의 방식을 포기하고, 자사 SNS와 인디밴드 매니아들의 입소문에만 의존했다. /백아란기자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 갈등, 대화로 풀겠다"

KT스카이라이프 "연내 신청서 접수 가능할 것"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KT스카이라이프 제공

"DCS(접시없는 위성방송) 신청서 접수는 현재 갈등 상황을 대화로 어느 정도 해결한 후 이뤄질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최근 유료방송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DCS 추진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DCS와 합산규제법을 연결시키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DCS는 위성방송국으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통신국사단에서 수신해 인터넷 망으로 가입자의 집까지 전송하는 방식이다. DCS를 통한 가입자는 개별 안테나 설치 없이도 인터넷 단자와 셋톱박스 간 선 연결만으로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그동안 케이블업계를 비롯한 유료방송업계에선 DCS는 KT스카이라이프만을 위한 특혜라며 위법 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DCS는 특히 7개를 가진 신기술 결합 서비스"라며 "KT스카이라이프가 먼저 DCS를 도입하면 현재 별다른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는 ICT진흥특별법이 확대,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인가에 중점을 두고 해당 사업을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혁진 정책협력실장도 "DCS 추진과 관련,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정부와 KT와 함께 협의 중"이라며 "신청서 접수는 업계·정부와 일부 이견이 있어 대화를 통해 갈등을 일부 해소한 뒤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케이블TV업계나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와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권 실장은 "그동안 막혀있던 남북 상황도 최근 북한 고위급 인사가 방한하며 물꼬가 트이지 않느냐.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화만 잘 풀리면 연내 신청서 접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는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HD수신기를 100% 무상 전환하고 본격적인 'All-HD 플랫폼' 사업자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기존 HD채널 104개에 신규 HD채널 13개, HD로 전환되는 SD채널 18개를 더해 총 135개 방송채널을 HD화질로 즐길 수 있게 됐다. 다음달 추가되는 2개 채널을 더하면 연내 총 141개의 채널을 볼 수 있다.

윤용필 콘텐츠운용본부장은 "KT스카이라이프는 채널의 양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스카이라이프만의 특화 채널을 선보일 것"이라며 "초고화질(UHD) 다채널 사업자로서의 입지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LG전자 '디오스 와인셀러' LG전자가 6일 프리미엄 '디오스 와인셀러' 신제품 3종을 출시했다. 내부 설계를 최적화해 보관할 수 있는 와인 수를 41·65·81병에서 43·71·85병으로 늘렸다. /LG전자 제공

모바일 결제 카카오페이 돌풍

출시 한달 만에 가입자 120만명 돌파

daumkakao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가 출시 한달만에 가입자수 120만명을 돌파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달 5일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달만에 순 가입자수 120만명을 넘어섰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출시 후 보름만에 14만명의 가입자를 기록한 데 이어 하루 최대 30만명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신용카드 이용자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 참여를 확정한 신용카드사는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롯데카드로 국내 대형 카드사 절반 이상에 해당된다. 유통 가맹점은 위메프,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홈플러스, 세븐일레븐 등이다. 다음카카오는 이번달을 기점으로 제휴 카드사와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카카오 측은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카카오픽에 도입된 이후 전체 신용카드 결제의 30% 이상을 차지할만큼 실제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연내 온라인 결제 지원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쿠쿠전자 신제품 출시 행사 참석한 이승기 가수 이승기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쿠쿠전자의 '하이브리드 에코 레인지' 출시 행사에 참석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kt금호렌터카, 불스원 미러 장착

종합 렌탈회사인 케이티렌탈(대표 표현명)의 렌터카 브랜드인 kt금호렌터카는 고객의 안전운전을 위해 업계 최초로 불스원 미러 장착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 렌터카 업계 1위인 kt금호렌터카는 차량관리용품 업계 1위 불스원(대표 이장훈)과 제휴해 업계 최초로 주요 지역 차량에 불스원 미러를 설치했다. 이 서비스는 6일부터 부산역 지점의 전 차량과 제주 오토하우스의 아반떼, K3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당 지점에서 렌터카를 대여한 고객이면 누구나 불스원 미러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다.

표현명 kt렌탈 대표이사(좌측)와 이장훈 불스원 대표(우측). /KT렌탈 제공

불스원 미러는 세계 최초로 비구면 PMF(누진다초점) 특허기술을 상용화한 사이드미러다. 일반 사이드미러보다 2배 이상의 광시야각을 제공해 사각지대로 인한 차선변경 추돌사고 및 후진 시 인명사고 등을 방지해준다.

또 주차시 넓은 시야로 후방에 있는 장애물이나 사람, 주차선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주차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해준다.

표현명 사장은 "차량운행시 고객이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제휴를 맺게됐다"며 "고객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할 것이며, 업계 1위 기업으로 차별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임의택기자

잘나가던 HP "아! 옛날이여~"

감원 이어 컴퓨터·프린터 부문 분사

한때 세계 최대 컴퓨터 회사로 꼽혔던 휴렛패커드(HP)가 개인용 컴퓨터(PC)와 프린터 사업 부문을 분사한다. 최근 급격한 PC 시장의 몰락 때문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HP가 PC와 프린터 사업 부문을 기업용 하드웨어와 서비스 사업에서 분리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1년 취임한 현 최고경영자(CEO) 멕 휘트먼이 PC와 프린터 사업 부문 회장과 기업용 하드웨어와 서비스 부문 CEO를 겸하고, 다이온 웨슬러 PC와 프린터 사업 총괄이 이 부문 CEO를 맡는다고 WSJ은 덧붙였다.

HP는 1939년 빌 휴렛과 데이비드 패커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로 알토에서 설립한 회사다. 2006~2013년까지 전세계 PC시장 1위를 지켰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의 레노보에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하향세를 보였다.

특히 HP는 2012년 5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3만4000명을 감원했다. 이어 지난 5월 1만1000~1만6000명 규모의 추가 감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지역민 입맛 맞추니 분양 경쟁력↑

대학·병원 등과 연계한 교육·의료 서비스 제공
지역민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진행 삶의 질 높여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분양 마케팅이 인기를 끌고 있다. 멀리 사는 수요자보다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수요자가 계약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 건설사들이 지역별 맞춤 판매 전략을 세운 것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최근 경남 양산신도시에 분양한 '남양산역 반도유보라6차'가 평균 4.1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부지 바로 앞 석산초등학교가 위치한 교육환경을 감안해 단지 내 2층 규모의 별동학습관을 마련한 게 주효했다.

이 회사는 이달 대구에서 공급하는 '대구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에도 단지 내 별동학습관을 짓고,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연계해 성인 전문강좌 '평생교육 학습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와이즈리더 영어도서관과 영유아 돌봄서비스, 방과 후 교실도 지원한다.

김정호 반도건설 홍보팀장은 "국가산단의 특성상 30~40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영유아 돌봄서비스와 방과 후 교실 등을 기획했다"며 "또 엄마들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게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학습관에서 자기계발이나 취미생활을 즐기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라는 시흥시와 사업협약을 체결해 아예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곧 분양 예정인 '시흥 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를 서울대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교육특화'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인근에는 서울대 공교육혁신 시범 초·중·고교가 함께 들어선다.

SK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에서 분양 중인 '수원 SK스카이뷰' 인근에 수원SK아트리움 공연장을 지어 시에 기증했다. 지하 2층~지상 3층, 95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으로 구성됐다. 교향악단, 오페라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있어 입주민은 물론 수원시민의 문화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반도건설이 대구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에 제공할 별동 학습관 이미지.

한양은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일원에 짓는 '파주 한양수자인리버팰리스'에 입주민의 건강을 위해 주치의 의료시스템을 도입했다. 월 1회씩 혈관·소변·체형검사·스트레스·성장판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2년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세대와 병원간 홈넷 연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세대 내에서 보다 편리하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작년 11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공급돼 완판 기록을 세운 '송파 파크하비오 푸르지오' 오피스텔도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과 연계한 의료서비스와 간호사 상주를 통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입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등 의료 마케팅을 펼쳐 인기를 끈 바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지역민에게 필요한 교육·의료·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설사는 당장의 계약률 제고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입주민 만족도 향상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향상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전세가율 최고 '동탄 신도시'

판교·광교보다 10% 높아

수도권2기 신도시 가운데 동탄 신도시가 가장 먼저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중) 80%를 돌파했다. 인근의 판교(68.01%)나 광교(59.62%)에 비해 10%p이상 높은 수치이며, 전국 223개 시군구(1기 신도시 5개, 2기 신도시 7개 포함)에서 가장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했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동탄신도시의 전세가율은 81.64%로 조사됐다. 매매가격이 1억원 이라면 전세가격이 8164만원에 이른다. 이는 동탄신도시 전체 평균 전세가율이며, 개별 아파트단지별로는 90%가 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입주초기인 2007년에는 불과 24.05%수준을 보였지만 약 7년 만에 80%를 넘어선 것이다. 여타 수도권 2기 신도시들이 입주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전세가율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동탄의 경우 비정상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대규모 자족시설 입지

동탄신도시의 경우 약 3만 여명이 근무(협력사 포함)하고 있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라는 대규모 자족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종사자들이 동탄 내에서 꾸준히 아파트 수요로 작용하고 있다. 아파트 수요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미분양이나 대규모 입주물량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밀어내기 식의 전세계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는 중이다.

◆2015년 2만여 세대 입주예정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동탄신도시이지만 2015년 이후에는 그 양상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바로 동탄2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2015년 1만5935세대, 2016년 7322세대 등 현재 계획된 입주물량만 2년간 약 2만3257세대에 이르며, 연말 분양 등을 통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동탄신도시는 대체주거지 없이 주변 수요를 흡수하며, 높은 전세가율을 유지했지만 동탄2신도시가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요의 분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분양가격도 현재 동탄신도시 매매가격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가격경쟁력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동탄 일대 전세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두탁기자 kimdt@

한화건설, 이라크 축구대표팀 단체응원 한화건설 임직원이 지난 2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개최된 2014 인천아시안게임 축구 동메달 결정전 '이라크 대 태국' 경기를 단체 관람했다. 한화건설은 이라크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 중이다. /한화건설 제공

공급 과잉 우려 세종시, 살아나나

공급과잉 우려로 잠시 주춤하던 세종시의 주택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습이다. 순위 내 마감도 어렵던 몇달 전과는 달리, 1순위에서 수십 대 1로 청약을 마감하는 단지가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6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 2-2생활권 첫 분양 단지인 P4구역 '세종 예미지'가 1순위에서 평균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래 계약 돌입 2주 만에 완판됐다. 또 1일 1·2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P1구역 '캐슬&파밀리에'도 1574가구 모집에 9034명이 몰렸다.

오는 8일 견본주택 개관 예정인 P3구역 '메이저시티'의 임시 분양 사무소도 연일 방문객으로 북적이고 있다. 지난 8월 말부터 운영된 이곳은 하루 평균 20팀, 총 600여 팀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 전화 역시 9월 초를 기점으로 3~4배가 증가했다.

메이저시티 분양 관계자는 "9·1대책 이후 하루 평균 200~300여 통의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며 "2-2생활권에서 첫 번째로 분양했던 단지의 성공으로 그 인기를 실감한데다 빗장 풀린 부동산 정책 호재가 제대로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9·1대책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급매로 나왔던 물건들이 사라지고 미분양 가구도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3-3생활권에 분양됐던 아파트의 경우 계약률이 30%가 채 되지 않았지만 한 달도 안 돼 70%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2-2생활권은 세종시의 강남으로 불리는 곳으로, 무엇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차별화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며 "분양가만 적절하게 책정된다면 P2·P3구역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쌀의 진화… 쌀면·쌀식빵 등 고객 사로잡기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가치 높여

한국인의 주식인 '밥'을 짓는데만 사용됐던 쌀이 환골탈태하고 있다.

맛과 영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인의 입맛과 기호에 맞는 가공식품으로 변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표한 쌀 가공식품 산업동향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1인당 쌀 가공식품 소비량은 11.7kg으로, 2011년의 7.9kg보다 무려 48% 이상 늘었다. 이에 식품업계에서는 냉동 볶음밥과 쌀면 등의 식사 대용식부터 쌀식빵 등 다양한 형태의 쌀가공식품을 출시하고 있다.

쌀로 만든 대표 제품인 냉동 볶음밥이다. 야채·해산물 등 다양한 재료와 쌀밥을 함께 볶아 별도의 조리 없이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냉동 볶음밥은 1인 가구의 필수품이 됐다. 최근엔 취나물·곤드레 등의 신선 나물을 첨가하거나 태국 스타일의 볶음밥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풀무원 계열의 친환경식품 전문 유통기업 올가홀푸드(이하 올가)는 최고 품질의 유기농 하이아미 품종 쌀과 유기농 보리·국산 채소 등을 사용해 만든 '올가 나물밥'을 선보였다. '곤드레 가마솥 밥'과 '취나물 가마솥 밥' 등 2종으로 구성됐다. 일반 쌀보다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31%나 높고 필수 아미노산 성분인 메티오닌(methionine)과 라이신(lysine) 함량이 높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최고 품질로 선정된 하이아미를 사용했다. 가마솥 직화 방식으로 쪄낸 후 밥알을 개별급속냉동하는 공정을 거쳐 집에서 갓 지은 것처럼 고슬고슬한 고 차진 밥맛이 난다.

올가홀푸드 '유기농 쌀로 만든 나물밥', 빙그레 '카오팟' 4종, 청정원 '밥이라서 좋다' 2종, 풀무원 '삶을 필요없이 바로 볶아 즐기는 팟타이', 올가 '보리를 넣어 만든 쌀식빵'

빙그레의 '카오팟'은 태국 스타일의 냉동 볶음밥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태국 레스토랑인 아한타이와 공동개발한 가정간편식으로 '카오팟 무쌉(돼지고기볶음밥)'과 '카오팟 꿍(새우볶음밥)'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데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RTH(Ready To Heat) 형태다.

청정원은 라면처럼 간편하게 끓여 먹는 국밥 형태의 '밥이라서 좋다'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상하이 식짬뽕밥'과 '사골미역국밥' 등 2종으로 라면과 즉석밥의 장점을 하나로 모았다. 갓 지은 고슬고슬한 밥맛을 재현해내기 위해 NCT(Newly Cooked Tasty) 공법을 적용했다. 이 공법은 밥을 지은 후 바람으로 빠르게 건조한 후 고온에서 로스팅하는 가공법이다. 또 분말스프 대신 액상 소스를 사용해 진한 국물 맛을 구현했다.

풀무원의 '삶을 필요없이 바로 볶아 즐기는 팟타이'는 정통 동남아제면 방식으로 만든 면을 팟타이 소스와 한 번에 볶아 바로 먹을 수 있다. 면을 따로 삶거나 불릴 필요없이 소스와 함께 후라이팬에 2분간만 볶으면 요리가 완성된다.

올가의 '보리를 넣어 만든 쌀식빵'은 무농약 쌀가루에 유기 재배 보리로 지은 밥을 통째로 넣어 만든 건강 식빵이다. 철분·섬유소·단백질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보리가 살아 있어 식사대용식으로 좋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재활용캔으로 만든 작품 감자칩 브랜드 '프링글스'가 제품 캔을 사용해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2014 프링글스 썸머 챌린지'의 우수 수상작들을 공개하는 전시회를 6일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롯데마트 안산점에서 열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7·8월에 진행한 프링글스 썸머 챌린지에 참가한 총 214개의 응모작 중 20개의 우수 작품을 선보였다. 10월 둘째 주에는 총 10개의 작품을 2개씩 5개의 롯데마트 매장에서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프링글스 제공

해외서 한국어 교육 열풍

온라인쇼핑 교재 불티

한류 열풍으로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 관련 교재와 도서 등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G마켓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사의 글로벌샵한글 교육 상품판매량이 전년동기보다 37% 증가했다고밝혔다. 판매 국가 수도 지난해57개국보다 19개국이나 늘었다.

이같은 현상은 드라마·K-POP등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국가에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아시아권 중 중국에서는 올해 전년 동기 대비 해당 제품의 판매가 9배 이상(871%) 급증했다. 이 외에 미얀마와 스리랑카에서는 각각 500%와 357% 판매율이 신장했으며 홍콩에서도 125% 판매가 늘어나는 등 아시아권의 판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유럽 권 인 네덜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서도 각각 6배(500%)와 3배(254%) 이상 증가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나이지리아와 탄자니아에서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한글 교육 상품 판매가 각각 3배(200%)씩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정기자 ksj0215@

강강술래 "기온 뚝, 보양식 곰탕 30% 할인"

매출 50% 껑충… 기력보충·면역력증진 효과
캠핑시즌 나들이세트, 간편먹거리 파격세일

환절기 감기 환자가 늘면서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에서 선보인 한우사골곰탕 매출이 전주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쌀쌀한 아침 날씨와 큰 일교차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기력보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곰탕이 제격이다.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넣지 않고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며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째 데워 먹을 수 있어 조리도 간편하다.

강강술래는 전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곰탕 소용량 선물세트(350㎖·5팩·10인분)는 2만2500원, 대용량 선물세트(800㎖·5팩·15인분)는 3만88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맞아 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선 강강양념구이(520g)와 한우불고기(50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500g)으로 구성된 나들이세트도 이달 말까지 40% 할인된 6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또 100% 국내산 돼지 통등심과 자연치즈를 사용한 통등심돈가스(3세트·2.16kg·3만1500원)와 모짜렐라돈가스(3세트·2.16kg·3만78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50g·6봉·2만5800원)도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한편 강강술래는 국내 매장 확대, 해외시장 진출 등 글로벌 외식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제품개발·경영지원·마케팅 등 다양한 부문의 신입·경력 공채를 진행한다. 홈페이지(www.sullai.com)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지원 가능하다. /정영일기자

AG 축구서 에스코트 키즈 진행

포카리스웨트, 한일 축구 꿈나무 참여… 포토 이벤트도

동아오츠카(대표 이원희) 포카리스웨트가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펼쳐진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녀 축구 결승전에서 한일 에스코트 키즈를 진행하고 이를 기념한 포토 이벤트를 개최했다.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이벤트에는 축구 꿈나무로 선정된 22명의 한일 어린이가 참여했다.

또 포카리스웨트의 유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기획된 결승전에스코트 키즈에는 33명의 한국 어린이와 11명의 일본 어린이가 참가했으며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는 한일 축구 꿈나무들이 동반 입장해 화합의 뜻을 더했다. /황재용기자

‘예비 엄마’는 소중하니까

체형 변화로 전용 화장품·속옷 선택해야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의 날이다. ‘예비엄마’에게 임신과 출산은 큰 축복이지만 임산부들은 열 달 동안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다. 체중이 불어나면서 체형이 변하는 것은 물론 튼살과 색소침착과 같은 피부 트러블도 겪게 된다. 임산부의 건강은 태아와 직결되는 만큼 평소 긍정적인 마인드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의 불균형, 태아에게 유입되는 혈액량 증가로 피부 탈수 현상과 함께 살이 트기 쉽다. 이때는 안전한 성분의 임산부 전용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 주름개선·화이트닝과 같은 기능성 제품은 태아와 임산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 가급적 피해야 한다.

아토팜이 새롭게 선보인 ‘매터니티 케어’는 미네랄오일·인공향료 등 10가지 유해성분을 배제해 임산부에게 적합하다. 네오팜의 국제 특허 피부장벽기술 MLE와 특허 세라마이드가 결합돼 끈적임 없이 보습과 영양분을 공급한다. 출산 전·후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타이트닝 크림’과 ‘마사지 오일’, 로션·에센스·크림의 기능을 한데 모은 ‘올인원 페이셜 크림’으로 구성됐다.

임신 중에는 잦은 입덧으로 식사가 불규칙하고 활동량이 줄어 변비에 걸릴 수 있다. 전문의들은 적당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권장한다. 쎌바이오텍의 ‘듀오락 위청장쾌’는 장 건강과 소화를 돕는 2종의 유산균과 2종의 덴마크산 효소를 함유한 제품으로 식물성 캡슐을 사용해 임산부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또 임신을 하면 가슴과 배가 전체적으로 크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체형 변화에 맞춰 임산부 전용 속옷을 입어야 한다.

남영비비안의 임산부 전용 속옷브랜드 마터니티는 최근 색다른 구성의 임부용 속옷을 선보였다. 브래지어는 와이어가 없는 노와이어로 어깨끈 부분이 똑딱이 장치로 열려 수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팬티는 허리선이 낮은 일반적인 스타일과 배까지 덮는 임부용 팬티 등 두 종류로 구성했다.

남영비비안 관계자는 “허리선이 낮은 팬티도 일반 제품과는 달리 허리 부분이 부드러운 원단으로 돼 있어 배에 압박감을 주지 않는다”면서 “특히 흡습성이 좋은 흰색 타월 소재로 밑부분을 처리해 임신기간 중 분비물의 양이나 색 등을 눈으로 확인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

이케아 병행상품 불만 폭증

“A/S 나 몰라라”

오는 12월 스웨덴에 본사를 둔 글로벌 가구업체인 ‘이케아’가 경기도 광명에 세계 최대 규모의 공식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병행수입 상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회사는 풀타임(정규직) 지원자에게 오히려 파트타임 등 계약직 전환을 제시하는 등 채용과정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 또 교묘하게 골목상권 보호 규제관련 법규를 회피하려는 꼼수(본보 10월 6일자 16면 보도)에 이은 소비자 대상의 ‘갑질’로 질타도 받고 있다.

이케아 제품과 관련해 하자 상품·배송 지연·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기업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이를 수입·판매한 유통사에서 A/S를 해 주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글로벌 업체인 이케아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소비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내 업체에 해당 제품을 판매해 놓고 업체의 부주의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자신은 판매만 했을 뿐 ‘나 몰라라’하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케아 병행수입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불만의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동안 공식 수입처가 없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대체로 병행수입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케아 상품을 구입해왔다.

실제로 한 이케아 병행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는 “5개의 부품 선반 중 하나가 박살 난 상태로 들어 있었다”며 “17번이나 통화를 거절당했다”는 소비자의 불만 글이 게재됐다. 또 다른 이용자는 “선반 철제가 구부러져 왔다”며 보관·배송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A/S가 어렵다는 점도 불만을 사고 있다. 일부 사이트는 수입 상품이기 때문에 A/S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아 놓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케아코리아 측은 해당 사이트와 자사는 별개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공식 판매처가 아니기 때문에 A/S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병행수입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 측에서 A/S를 책임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지 실추 우려에 대해서는 “매장을 통해 이케아 브랜드를 소개하고 이케아에서 제공되는 많은 혜택과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할 예정이다”는 원론적인 말만 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연령별 맞춤 신사화 금강제화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금강제화 명동 본점에서 신사화 ‘리갈(Regal)’ 출시 60주년을 기념해 2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별 한국 남자의 멋을 표현하는 이색적인 행사와 함께 스페셜 에디션 7종을 선보였다. ‘남자의 일상을 빛내 줄 여섯 개의 리갈’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출장’ ‘발표’ ‘여행’ ‘데이트’ ‘결혼’ ‘파티’ 등 6가지 TPO(시간·장소·상황)에 맞게 제작된 6개 모델등 총 7종의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 했다. /손진영기자 son@

김지석, ‘초콜릿 복근’ 탐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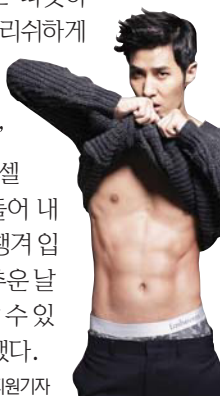
라쉬반, 가을 화보 공개

배우 김지석(사진)이 탄탄한 ‘초콜릿 복근’을 드러냈다.

분리형 언더웨어 라쉬반은 6일 브랜드 모델 김지석과 함께 한 화보를 공개했다.

김지석은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질 몸매를 과시하며 특유의 부드러운 매력을 뽐냈다.

라쉬반 관계자는 “이번 화보 등장한 가을·겨울 신제품 ‘뉴히트’는 한 겨울에도 따뜻하고 스타일리쉬하게 입을 수 있는 5부 길이의 속옷”이라며 “텐셀 소재로 만들어 내복을 따로 챙겨 입지 않아도 추운 날씨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보온마케팅’ 얼어붙은 소비심리 녹일까

가을이 오면서 유통가 주력상품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른 월동준비에 들어간 소비자를 위해 보온 상품들을 앞당겨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여름 역시즌 마케팅의 호황을 누렸던 아웃도어를 특가에 판매하며 ‘보온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메프는 ‘아우터 컬렉션’ 기획전을 통해 가을·겨울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CJ오클락은 ‘노스페이스 하이벤트 방수재킷’ ‘네파 마레 다운재킷’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 바 있다.

따뜻한 탕이나 차(茶)를 완제품 포장판매한 상품도 이목을 끈다.

CJ오클락은 완도산 전복·새우·

꽃게 등 해물로 구성된 제주식 전복해물뚝배기는 5000원(1봉)에 판매중이며 ‘노하우 우엉차’(사진) ‘착한 농부 우엉차’ 등도 선보이고 있다.

겨울 리빙 상품도 등장했다. 구스 다운 침구가 초가을부터 판매가 신장하는 한편 이색 아이디어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닷컴은 ‘가구&침구 박람회’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구스다운을 포함한 다양한 침구와 가구를 선보인다. 구스 다운 침구는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5% 이상 신장하는 등 높은 일교차에 특수를 누리고 있다.

소프라움은 19일까지 롯데백화점 19개 점에서 구스대전을 실시한다.

CJ오클락은 USB포트에 연결해 사용 가능한 발열 슬리퍼·담요 등을 모아 3000원대에 내놓았다.

업계 관계자는 “초가을 보온 마케팅은 상대적으로 고가인 겨울 월동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일깨울 뿐만 아니라 일찌감치 올 가을·겨울 소비자 니즈와 소비경향을 가늠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말했다./김수정기자

철저한 준비, 마라톤 부상 막는다

올바른 자세 숙지가 먼저… 평소 꾸준히 운동해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본격적인 마라톤의 계절이 시작됐다. 각종 마라톤대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으며 자연 속을 달리면서 단풍을 즐길 수도 있다. 하지만 체력을 단련시켜 놓지 않은 상태에서 마라톤을 시작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사실 마라톤은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강도 높은 운동이라 바른 자세를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달릴 때는 체중의 3~4배까지 하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준비운동 없이 무작정 달리기를 시작하면 허리와 각 관절 주변 근육·인대에 충격이 전해져 급성 요통이나 추간판탈출증, 관절통 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오래 달리기 위해서는 먼저 가슴과 등을 쭉 펴는 것이 좋다. 서 있는 상태에서 턱은 몸 쪽으로 가볍게 당기고 어깨는 힘을 빼야 한다.

또 마라톤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라면 평소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골밀도와 근육이 약화되는 35세 전후라면 평소 적절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키워야 한다. 생활 속에서 움직임이 적은 사무직 종사자나 저체중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계단 오르내리기, 일주일에 1~2번 이상 바른 자세로 뛰기 등이 적당하다. 아울러 허리와 복부 근육이 척추와 상체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 부위의 근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발의 선택도 마라톤에 영향을 미친다. 아킬레스건을 싸는 패드와 깔창의 쿠션이 부드러운 것을 골라야 하며 초보자는 부상을 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훈련화를 선택해야 한다. 또 평발에 가까운 사람은 달릴 때 발이 안쪽으로 휘는 것을 감안해 쿠션이 많이 들어간 제품을 피하는 것이 좋다.

박영목 연세바른병원 원장은 "요즘처럼 기온이 떨어지는 환절기에는 달리기 전 꼭 스트레칭을 해 근육을 풀어줘야 한다. 또 달릴 때 시선은 전방 18~20m를 향하고 몸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매력이 넘치는 특급호텔

옥토버페스트와 재즈 공연, 크리스마스 웨딩까지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특급호텔들이 이색적인 매력을 뽐내고 있다. 호텔이 준비한 색다른 즐거움을 만나보자.

먼저 쉐라톤 인천 호텔은 뷔페 레스토랑 피스트에서 독일인 총주방장 요하킴(Joachim)이 준비한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 프로모션'(사진)을 선보인다. 독일 맥주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으며 요하킴 총주방장이 특별한 레시피로 준비한 맥주 소스를 바른 독일식 돼지족발 학센과 카레 소시지 커리부어스트 등 20가지의 독일 전통요리를 맛볼 수 있다. 프로모션 기간은 17일부터 26일까지다.

또 스탠포드호텔에서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라이브 재즈 피아노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주중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뉴욕 펍 스타일의 맨해튼 그릴앤드바(Manhattan Grill&Bar)에서 공연이 무료로 열리며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방문하는 고객은 와인과 생맥주, 칵테일이 1만6500원에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해피아워를 이용할 수 있다.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크리스마스 시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예식을 준비한다.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웨딩 중 350명 이상의 예식이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크리스마스 메뉴 및 와인이 7만5000원에 제공되며 최대 30명까지 트레비라운지에서의 에프터파티에 참여할 수 있다. 게다가 커피와 주스 등 무료 웰컴 드링크와 포토 에세이 DVD 제작이 서비스된다. /황재용기자

행복하고 즐겁게 여행 떠나는 법!

한국여행업협회, 매년 '우수 여행상품' 선정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함께 유럽 등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수많은 여행사와 여행상품이 쏟아지고 무등록 여행사와 여행 사기 소식이 이어지면서 여행을 준비하는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

이런 가운데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우수 여행상품'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우수 여행상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우수한 상품을 선정하는 제도로 전문 평가위원회가 각 상품의 ▲안전성 ▲독창성 ▲공정성 ▲시장성 등을 평가한다.

KATA는 이런 평가를 통해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여행상품을 선별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또 여행정보센터에서는 우수 여행상품뿐 아니라 여행사의 관할 지자체 등록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특히 부도·폐업 등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사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공제) 가입 여부도 공개된다. /황재용기자

황금연휴, 도심서 즐긴다

황금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자연이나 해외로 떠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교통체증도 심하고 숙박비 등 여행 경비도 고민이다. 이에 가까운 교외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먼저 더 추워지기 전 마지막 물놀이를 원한다면 한강을 찾으면 된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에서는 수상스키 등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다.

또 송도센트럴파크에서는 카누와 카약, 패밀리보트 등을 타고 여유롭게 도시와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심에도 멋진 트레킹 코스가 있다. 서울 동물원 외곽의 산림욕장은 8㎞의 길이의 산책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맨발 산책로를 포함한 11개의 테마 코스로 구성돼 있다.

가까운 남산과 낙산, 인왕산 등을 잇는 한양도성길과 관악산과 북한산 등 서울의 외곽을 도는 서울둘레길은 도심 속 가족 트레킹 코스로 유명하다.

주요 계곡이나 관광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럭셔리 글램핑도 가능하다. 글램핑은 필요한 도구들이 모두 갖춰진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는 것으로 한강 뚝섬과 잠실 등에서 바비큐장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인사동에 위치한 공간예술 테마파크 '박물관은 살아있다'에서는 다양한 트릭아트(눈속임아트)를 체험하며 가을 추억을 쌓을 수 있다. 그림에 입체적으로 표현된 봉을 잡고 소림사의 절대고수와 직접 무술 대결을 펼치는 것처럼 연출 가능한 소림사와 늪지대와 악어동지를 실제적으로 재현한 악어동지가 인기다. /황재용기자

"이미지 관리부터 하려고요"

'괜찮아 사랑이야' 오소녀 이 성 경

이성경(24)은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의 첫 등장부터 신선했다. 품행장애를 앓고 있는 날라리 오소녀 역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했다. '손연재 닮은 꼴' '갈색 눈'으로 시선을 사로잡은 그는 2008년 모델로 데뷔해 올해 배우로 다시 데뷔, 인생에 전환점을 맞이했다.

◆ 작품에 어떻게 합류했나?

김규태 감독의 딸 덕분인 것 같다. 제작진이 오소녀 역에 신선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젊은 친구들이 모델에 관심이 많고 김 감독의 딸이 내 팬이기도 했다. 기회가 주어져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떨리기보다는 민망했다. 연기를 처음 하는 신인이라 '어차피 안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면접을 봤는데 오히려 편안한 모습을 좋게 봐 주셨다.

◆ 연기력에 대해 역할을 잘 만났다는 평가다.

맞는 말이다. 아무것도 아닌 이성경을 오소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작가가 열심히 써줬고 감독·선배·스태프들이 많이 도와줬다. 또 오소녀와 실제 내 성격이 비슷하다. 학창시절 나도 밝음 그 자체였다.

◆ 오소녀는 품행장애다. 이성경도 마음의 병이 있나.

자존감이 낮았다. 생각이 몸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 모델할 땐 지금보다 10㎏ 더 말랐었다. 자존감이 낮아 벌어진 일이었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폭식을 했고 안 좋은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관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졌다.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사진빨, 화장빨일거야'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치유책으로 내 탓 대신 남 탓을 해봤다. 스스로를 위로하니까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보낼 수 있었고 폭식을 안 하니까 다이어트도 잘 됐다. 장재열(조인성)이 남편을 피해 똥 통에 숨은 엄마와 마주치는 장면이 '괜찮아…'에 나온다. 그때 대사가 '울었다면 다 털어버릴 수 있었을 텐데'였다. 정말 공감하는 말이다. 나는 예전에 울지 않으려고만 했는데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털어버렸다면 자존감이 낮아 생겼던 압박감을 조금 더 빨리 이겨낼 수 있었을 거다.

◆ 배우가 됐다. 변한 게 있다면?

모델은 연예인이 아니라고 본다. 연기를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도 연예인이 되기 싫어서였다. 그 무게를 지키기 위해선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섬세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하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 이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 분수에 넘치는 자리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창피하다. 모델 이성경이 아닌 연기자로 다시 시작하는 시기다. 처음처럼 준비하고 싶다.

◆ 모델보다는 연기에 더 집중하겠다.

'괜찮아…' 팀을 뿌듯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런데 모델인 내 모습을 좋아해 준 팬도 있고 나 역시 모델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적정 선에서 일을 함께 하고 싶다.

자존감 낮은 마음의 병 있었다
첫 팬 보고 한 말 "저를 아세요?"
롤모델 공효진…"대체할 수 없다"

◆ 처음 팬의 존재를 알았을 때 기분은?

'저를 아세요?'였다. (웃음) 쇼장에 와서 사인해달라며 내 이름을 말했고 그 사람에게 '저 같은 사람 사인을 왜 받아요~ 사진 찍어요'라고 했다. 그렇게 행사장에 찾아오고 선물·편지를 보내주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늘었다. 내 무대를 같이 즐겨주니까 정말 고맙다. 그런데 오히려 나는 바쁘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미안할 때도 있다. 내 팬은 감동쟁이, 사랑꾼들이다.

◆ 활발한 성격이라 인맥이 상당할 거 같다.

개인적으로 모든 걸 터놓는 친구가 있다. 이수현이라고 한 살 언니인데 언급해주면 정말 좋아할 거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힘들어도 나를 챙기는 사람이다. 취향부터 모든 게 다 똑같다. 이 언니를 중심으로 함께 있는 것 만으로도 힐링되는 지인들이 있다.

◆ 이수현 씨는 '괜찮아…'를 다 봤겠다.

언니가 내 모습을 다 아니까 오소녀가 이성경이라고 해줬다. 오소녀 대사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관심을 가졌고 마지막 촬영 때는 현장을 방문했다.

◆ 롤모델은?

공효진. 트렌디한 여배우다. 겸손하고 아는 것도 많고 배려도 깊다. 공효진 언니의 생활형 연기는 아무도 대체할 수 없다.

◆ 활동 계획은?

천천히 준비할 예정이다. 그런데 우선 이미지부터 관리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정말 여성스럽지 않고 까불거린다. (웃음)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디자인/김아람

"JYJ 보자" 영동대로에 5만명

'한류 페스티벌' 단독 콘서트 글로벌 팬 열광

JYJ(사진)가 서울 한복판에서 5만 명을 불러모아 가을 밤을 K팝의 열기로 뒤덮었다.

JYJ는 5일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 앞 특설무대에서 '강남 한류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8월 잠실 주경기장을 3만여 명의 관객으로 가득 채운 JYJ는 또 한 번 초대형 야외 공연으로 절정의 인기를 확인했다.

이들은 발라드, 댄스, 록, 어쿠스틱, R&B 등 다양한 장르의 20여 곡을 라이브로 선사했다. 김재중은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박유천은 메이트의 '너에게 기대' 등 다른 가수의 노래도 선보이며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

김준수가 자신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인 '타란탈레그라'와 '인크레더블'을 부르며 힘이 넘치는 댄스 퍼포먼스를 함께 선사했고, 5만여 명의 팬들은 파도타기를 하는 장관을 연출하며 무대에 화답했다.

JYJ는 "가을밤 콘서트 하기 딱 좋은 날씨다. 6년 만의 거리 공연인데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너무 기쁘고 즐겁다"고 소감을 전했다.

JYJ는 베테랑 한류 아티스트의 면모를 드러냈다. 흔들림 없는 라이브는 물론 춤과 화려한 무대 장치로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무대 연출이 쉽지 않은 도심 야외 공연임에도 워터캐논, 에어샷 등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돌출 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이날 공연에는 국내 팬들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와 남미·유럽 각국의 팬들까지 모여 JYJ의 라이브를 만끽했다.

공연을 즐긴 비키(25·인도네시아)는 "이번에 아시아 투어를 가지 못했다. JYJ의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오전부터 기다렸는데 무척 행복한 기억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JYJ는 최근 서울, 홍콩, 중국 베이징, 베트남 호치민, 중국 청두, 대만 타이베이, 중국 상하이, 태국 방콕 등 8개 도시에서 아시아투어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유순호기자 suno@

6일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tvN 새 금토드라마 '미생'의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배우 강하늘(왼쪽부터), 변요한, 강소라, 임시완, 이성민, 김대명이 포토타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웹툰 '미생' 안방에 고스란히

드라마 제작 주인공 장그래부터 조연 캐릭터까지 '완벽 일치'

최근 온라인에선 잘 생긴 배우의 외모를 설명할 때 '마치 만화책을 찢고 나온 듯 한'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 한다. tvN 새 금토드라마 '미생' 역시 출연진 전원이 마치 웹툰을 찢고 나온듯한 '싱크로율(일치율)'을 자랑한다. 이 드라마는 지난 2011년부터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인기리에 연재 중인 윤태호 작가의 웹툰 '미생'이 원작이다.

'싱크로율 100%'에 도전하는 캐스팅에 대해 '미생' 연출을 맡은 김원석 PD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출연진 한 명, 한 명 모두 힘들게 캐스팅했다"고 밝혔다.

김 PD는 "가장 먼저 오상식 과장 역의 이성민을 캐스팅했는데 작년부터 계속 부탁해왔다. 사실 이성민씨는 원작의 오 과장과 외모가 비슷하진 않지만 평소 연기에 임하는 자세가 오 과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 한 명씩 캐스팅 할 때마다 윤태호 작가님의 원작에서 의도한 느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주인공 장그래 역의 임시완은 지난해 '미생 프리퀄'에 이어 다시 한 번 장그래를 연기하게 됐다. 임시완은 "'미생'이 드라마로 만들어진단 소식을 듣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먼저 하고 싶었다"며 애착을 보였다. 그는 극중 입었던 펑퍼짐한 양복을 그대로 입고 나와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임시완은 "'미생'을 알리는 자리에 너무 멋 부리고 오면 캐릭터와 이질적일 것 같아 극중 의상을 그대로 입고 나왔다"며 역할에 몰입한 모습을 보였다.

김동식 대리 역의 김대명은 "김 대리의 통통한 모습을 위해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먹으며 뱃살 유지에 힘쓰고 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석율 역의 변요한 역시 "촌스러운 5대5 가르마를 평소에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리트 신입사원 안영이 역의 강소라와 장백기 역의 강하늘은 실제 신입사원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큰 목소리로 씩씩하게 인사했다.

17일 오후 8시40분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미생'은 바둑이 인생의 전부였던 주인공 장그래가 프로입단에 실패한 후 종합무역상사 인턴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원작 웹툰은 연재 당시 사회 초년병이 바라본 직장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샐러리맨의 교과서'라고 불리며 작품성과 인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주니엘 '베란다 라이브' 릴레이 공연

소규모 무대 팬과 밀착 호흡

지난달 29일 '연애하나봐'로 컴백한 싱어송라이터 주니엘(사진)이 릴레이 라이브 공연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다.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주니엘은 지난달 28일 서울 청계천에서 '피크닉 라이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서울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베란다 라이브 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주니엘은 데뷔곡 '일라일라'를 시작으로 자작곡 '소년' '사쿠라(벚꽃)' '에버래스팅 선셋'과 신곡 '연애하나봐'를 차례로 노래했다. 이날 주니엘의 라이브 공연 소식에 많은 팬들이 현장을 찾았으며 미처 입장하지 못한 팬들은 카페 밖에서 기다리며 음악을 감상했다. 특히 경남 창원, 경기 포천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팬과 외국인 팬도 방문해 주니엘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는 후문이다.

라이브 무대 외에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한 주니엘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전했다.

한편 주니엘은 오는 8일 오후 7시 부산 광안리의 한 카페에서 라이브 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지민기자

SM타운 라이브 누적 관객 100만

일본 공연 12만명 동원…중국서 열기 이어

SM 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공연 브랜드 'SM 타운 라이브'가 최근 도쿄 공연으로 누적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

SM에 따르면 지난 4·5일에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번 'SM 타운 라이브'엔 이틀간 총 12만 명의 관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돼, 'SM 타운 라이브' 전체 공연 총 누적 관객 수 101만4000명을 돌파했다.

지난 4·5일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SM 타운 라이브' 무대에 동방신기가 올랐다. /SM 엔터테인먼트

이번 일본 공연엔 강타·보아·동방신기·슈퍼주니어·소녀시대·샤이니·에프엑스·엑소·레드벨벳·슈퍼주니어-M 헨리·조미·제이민 등 SM 소속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화려한 무대를 꾸몄다.

특히 이번 일본 공연 티켓을 구하지 못한 현지 팬의 요청으로 SM 측은 도쿄·오사카·교토·히로시마 등 일본 135개 영화관에서 공연 실황을 생중계하는 라이브 뷰잉 이벤트도 개최해 영화관 스크린을 통해서도 총 10만 관객이 공연을 관람했다.

지난 2008년 첫 투어를 시작한 'SM 타운 라이브'는 서울·뉴욕·LA·파리·도쿄·베이징·방콕·싱가포르 등 세계 여러 도시에서 열렸다. 한국 단일 브랜드 공연 최초 프랑스 파리 공연, 아시아 가수 최초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공연, 해외 가수 최초 중국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단독 공연 등의 기록을 세웠다.

SM은 오는 18일 중국 상하이 체육장에서 'SM 타운 라이브' 투어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지민기자

"내 딸이 사라졌다.
범인은 가족 중 한 명이다!"
tvN 일일드라마
가족의비밀
tvN 일일드라마의 부활!
신은경 김승수 차화연 류태준 이일화 효영
10월 27일 {월} 저녁 8시 tvN 1화 방송 * 매주 {월~목} 방송

'서부전선'의 배우 설경구. /롯데엔터테인먼트

'암살'의 최동훈 감독과 출연 배우들. /쇼박스 미디어플렉스

★감독·배우 2015년 흥행 예고

CJ·롯데·쇼박스·NEW 라인업 공개

CJ엔터테인먼트·롯데엔터테인먼트·쇼박스 미디어플렉스·NEW 등 한국 4대 메이저 배급사들이 2015년 라인업을 발표했다. 사극·액션·멜로·로맨스·스릴러·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내년 극장가를 풍성하게 만들 전망이다.

◆ CJ, 합작영화로 해외 진출 가속화

CJ의 라인업에서는 해외 진출 가속화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이 눈에 띈다. '20세여 다시 한 번'은 '수상한 그녀'의 중국판으로 배우 양즈산과 그룹 엑소 멤버 루한이 출연한다. '접속'의 장윤형 감독은 배우 황리싱, 따이리런과 함께 미스터리 블록버스터 '평안도'를 촬영 중이다. 베트남과의 합작영화인 '호이가 결정할게'와 '세 여자 이야기'도 현지 관객들과 만난다.

한국영화도 풍성하다. 김현석 감독의 '쎄시봉',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 박진표 감독의 '오늘의 연애'(가제), 강제규 감독의 '장수상회'(가제), 곽재용 감독의 '시간이탈자' 등 유명 감독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정우성이 제작한 '나를 잊지 말아요', 신하균·장혁·강하늘·강한나 주연의 '순수의 시대', 임수정·유연석 주연의 '은밀한 유혹', 류승룡·이성민 주연의 '손님'(가제), 손예진·김주혁 주연의 '행복이 가득한 집'(가제), 황정민·정우 주연의 '히말라야'(가제), 이선균 주연의 '성난 변호사', 이제훈 주연의 '명탐정 홍길동'(가제)도 라인업에 포함됐다. 류승룡·수지·송새벽 주연의 '도리화가'도 만날 수 있다.

◆ 롯데, 사극으로 극장가 공략

롯데는 사극으로 극장가 공략에 나선다. 전도연·이병헌·김고은 주연의 무협 영화 '협녀, 칼의 기억'은 올 겨울 중 개봉 예정이다. 고려 말 천민으로 태어나 왕의 자리를 탐하며 연인을 버린 야심가와 그에게 복수의 칼날을 겨누는 두 모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민규동 감독의 신작으로 주지훈·김강우·임지연이 캐스팅된 '간신'(가제)도 롯데를 통해 개봉한다. 조선 연산군 시대를 배경으로 간신과 왕이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혈의 누' '후궁: 제왕의 첩'의 김대승 감독은 조선시대에 마술사가 있었다는 가상의 설정을 다룬 사극 '조선마술사'를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엄지원·박보영 주연의 '소녀'(가제), 설경구·여진구 주연의 '서부전선', '연애의 온도' 노덕 감독의 신작 '저널리스트'(가제), 박흥식 감독의 차기작 '해어화', 기욤 뮈소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하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등이 라인업에 포함됐다.

◆ 쇼박스, 흥행 감독 신작 개봉

쇼박스는 흥행 감독들의 신작으로 라인업을 알차게 꾸몄다. '도둑들'의 최동훈 감독은 전지현·이정재·하정우·오달수·조진웅과 함께 내년 여름 '암살'로 돌아온다.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 작전을 위해 모인 암살자들과 임시정부요원, 청부살인업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소원'으로 연출에 복귀한 이준익 감독은 '사도'를 촬영 중이다. 조선시대 아버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은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송강호·유아인·문근영 등이 출연한다. 김윤석·유해진이 주연을 맡은 곽경택 감독의 '극비수사'(가제)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김명민·오달수 주연의 '조선명탐정: 놉의 딸', 전도연·공유 주연의 '남과 여', 황정민 주연의 '검사외전', 유연석·문채원 주연의 '그날의 분위기', 이병헌·조승우·백윤식 주연의 '내부자들', 지진희·성유리 주연의 '여름에 내리는 눈'도 공개된다.

◆ NEW, 다양한 장르 풍성한 재미

NEW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그중 하정우의 두 번째 감독 작품 '허삼관'(가제)과 '신세계' 박훈정 감독의 신작 '대호'가 눈에 띈다. '허삼관'은 소설 '허삼관 매혈기'를 영화화한 작품으로 하정우가 감독·각본·주연을 맡아 하지원과 호흡을 맞췄다. '대호'는 조선 마지막 호랑이와 호랑이를 잡는 조선 마지막 명포수의 이야기로 최민식이 출연을 확정했다.

청춘스타들의 활약도 만날 수 있다. 김우빈·이준호·강하늘 주연의 '스물'(가제)과 심은경 주연의 스릴러 '널 기다리며', 박보영 주연의 영화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가 개봉을 준비 중이다. 실화 원작인 '연평해전'과 '오빠생각'도 NEW가 준비 중인 야심작들이다.

'돼지의 왕' '사이비'의 연상호 감독은 애니메이션 '서울역'과 실사 영화 '부산행' 연작을 선보인다. CF 감독 출신 백종열 감독의 '뷰티 인사이드', 스릴러 '루시드 드림'과 '더폰', 한국 애니메이션 '뽀로로2'도 개봉한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베테랑'의 류승완 감독과 배우 황정민. /CJ엔터테인먼트

'허삼관 매혈기'의 배우 하지원과 감독 겸 배우 하정우. /NEW

비염 대처, 체질 따라 다르다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가을이 되면 유독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비염 환자들이다. 코가 근질거리고 조금 지나면 콧물이 줄줄 흐르거나 꽉 막히는 등 코감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감기와는 달리 열이나 기침 등의 다른 증상들이 없지만 쉰다고 해서 낫는 질환이 아니다 보니 더 괴롭다. 비염이 심해지면 두통이 생기거나 눈이 가렵고 충혈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예민해지기 쉽다.

비염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는 경우와 코가 막히고 누런 콧물이 나오는 경우다. 전자는 몸 안에 냉기가 스며들고 그로 인해 호흡기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고, 후자는 체내의 과도한 열과 염증이 호흡기에 영향을 줘 코 속이 건조해지고 막혀 나타난 것이다. 흔히 비염은 다 똑같다고 여기기 쉬운데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에 대처법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냉기로 인해 나타나는 맑은 콧물은 주로 음인들이 많이 겪는다. 특히 아침이면 콧물이 흐르는 게 심하다. 콧물 증상이 심하다면 코를 중심으로 약 10여분 정도 찜질을 하는 것도 좋다. 냉기가 빠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코의 상태가 크게 나아진다. 이외에도 평소 자기 전과 일어난 후 배에 찜질팩을 대고 10분 이상 찜질하는 것도 좋다. 몸의 기혈을 활성화 해주기 때문에 아침에 코가 흐르는 증상이 많이 나아질 것이다. 여기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양파·생강·마늘 강황 등으로 만든 음식이나 차를 자주 먹어주면 좋다.

코가 막히고 열감이 느껴지는 비염은 양인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말라붙은 진액을 보충하고, 막힌 열기를 식히고 뚫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속 열을 식혀야 하기 때문에 성질이 찬 본초들을 먹어주면 효과가 좋다. 호흡기 질환에 좋다고 알려진 배, 도라지가 여기에 해당하며 수세미 열매도 매우 좋다. 주로 매실청 담그듯 청으로 만들어 먹거나 말려서 차로 마신다. 성질이 차갑고 진액 보충에 뛰어나 비염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김소형 본초학 박사(김소형 한의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남친 어머니 병환으로 결혼 쉽지 않아
작은 것에 만족하며 보완해가면 도움

Q tlsgmla 여자 80년 6월 13일 음력 오전 11시20분
남자 73년 2월 8일 음력

궁합 좀 봐 주세요. 남자친구랑 만난 지 1년 됐고요. 남자 쪽 홀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결혼 할 상황은 아니라서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타이밍이 중요한데 서로 상황이 다르니 타이밍이 잘 안 맞네요. 지금 상황에서 결혼을 해도 홀어머니 병 안이 안 좋아서 서로 많이 힘들 것 같기도하고 결혼 인연이 쉽지가 않네요. 궁합이랑 결혼 운 좀 부탁드립니다.

A 두 분 사주구조를 살펴보면 팔자에서 인성(印星:나를 생해주는 기운)이 약한데 식상(재물을 생하는 기운)이 신왕한 경우 재물이 비겁의 극(剋; 해를 당함)을 받아 약해져 가면서 재물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는 재성(재물)이 있어도 환경에서 재성이 쇠약해지거나 하여 승발하지 못한 때 빈한한 것이며 사주구조에서 재물의 근원인 식신 상관이 없으면 틀림없이 어렵게 살게 됩니다. 당장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환경도 없으며 직업도 안정적인 상대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거나 없거나하여 힘을 합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주끼리 만나는 것도 궁합의 한조건 이라고 봅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다면 작은 것에 만족하고 열심히 일을 하여 잡념을 떨쳐 버려야 하겠지요.

돈에 허덕이는 자신의 환경을 받아들인 다면 상호보완이 되고 운에서도 받침 되는 호운이 되돌아온다고 말합니다. 물론 매우 어려운 얘기이겠지요. 실제궁합이 맞아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지요. 본인끼리는 맞아도 두 집안이 서로 신경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고, 궁합이 좋지 않아 이혼, 사별수가 있다고 해도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한 부부의 조건에는 돈을 많이 벌어 금전적으로 풍족하게 지내는 것도 있고 자녀가 있든 없든 지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편안해야 합니다. 귀하는 괴강(보스 기질)에 천문(天門)이 들어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고 책임 의식이 강해서 행동이나 마음의 시비가 분명하여 어렵게시작하여 하나씩 일구어나가는 구조입니다. 태극귀인(太極貴人)의 상이라 시종일관하여 좀래 성과를 거두는 기쁨이 있으니 도움 되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1	3	6
		8	3		6		7	
	3			9				
8	9				1			
5				6				4
			2				5	7
				5			2	
	6		9		2	4		
4	5	2				7		

	4				7		6	
	6		4					9
1			3	6				
		3	7		2	1		4
		1				8		
4		8	1		3	9		
				7	6			3
5					1		2	
	1		5				9	

스도쿠 정답

9	7	5	4	2	8	1	3	6
2	4	8	3	1	6	5	7	9
1	3	6	7	9	5	2	4	8
8	9	7	5	4	1	3	6	2
5	2	3	8	6	7	9	1	4
6	1	4	2	3	9	8	5	7
7	8	9	1	5	4	6	2	3
3	6	1	9	7	2	4	8	5
4	5	2	6	8	3	7	9	1

8	4	5	9	2	7	3	6	1
3	6	2	4	1	5	7	8	9
1	7	9	3	6	8	2	4	5
6	9	3	7	8	2	1	5	4
7	5	1	6	4	9	8	3	2
4	2	8	1	5	3	9	7	6
9	8	4	2	7	6	5	1	3
5	3	6	8	9	1	4	2	7
2	1	7	5	3	4	6	9	8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신점[神占] 운세 10월 7일 (음 9월 14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동쪽서 행운의 소식 날아온다. **60년생** 이성으로 인한 구설수 조심~. **72년생** 정에 끌려 다니면 명분과 실리 모두 잃는다. **84년생** 어려워도 꿈을 버리지 말라.

49년생 몸은 고단하나 보람찬 하루~. **61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73년생** 상황이 급박해도 돈에 흔들리지 말라. **85년생**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에 빠진다.

50년생 감정에 치우치면 손해 본다. **62년생**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니 걱정 말라. **74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86년생** 욕심이 과하면 구설 따름~.

51년생 과거 일에 연연하지 말라. **63년생** 달콤한 말에 현혹되면 폭탄이 된다. **75년생** 군더더기 뺀 참모습을 보여주라. **87년생** 익숙한 틀을 깨면 새 길이 열린다.

52년생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다. **64년생** 입맛 당기는 제안 받는다. **76년생** 후배 밀어 줄 수 있어 즐겁구나. **88년생** 죽 쒀서 남에게 주는 일이 생긴다.

53년생 자녀 일에 관여하지 말라. **65년생** 자녀가 웃음보따리 선물한다. **77년생** 마음먹은 일은 변수 있어도 추진하라. **89년생** 협조 요청에 동조하는 게 이롭다.

42년생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된다. **54년생** 꼬인 매듭을 푼 후에 다음 생각할 것. **66년생** 미운오리가 백조가 된 격이다. **78년생** 필수코스가 아니면 사양할 것.

43년생 서운해도 참아야 이득~. **55년생** 배우자와 달콤한 추억에 행복하다. **67년생** 뒷맛이 개운하지 않는 일은 삼가라. **79년생** 잊을만하니 불청객이 나타난다.

44년생 판을 키우면 수익은 늘어난다. **56년생**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68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80년생** 겉도는 동료를 잘 보듬어라.

45년생 하고 싶은 것은 일단 시작하라. **57년생** 어설픈 반격은 역풍 부른다. **69년생** 정도 벗어난 중재안은 거부할 것. **81년생** 눈을 낮추면 길은 생긴다.

46년생 중매한 일은 성사된다. **58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심신만 피곤~. **70년생** 급하다고 유화책 쓰면 또 당한다. **82년생** 주변에 귀인이 있으니 잘 살펴라.

47년생 반대 여론 외면하지 말라. **59년생** 불편해도 진실은 말해야 한다. **71년생** 망신수나 구설수 조심할 것. **83년생** 필이 꽂히는 이성과 마주 앉는다.

세계가 주목할 '광주U대회' 준비

D-9개월…인프라·자원봉사자·운영통합시스템이 핵심

지난 4일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16일간의 열전을 마쳤다. 이제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또 다른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인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U대회는 2015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전세계 170여 개국의 선수단·임원진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테스트이벤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상황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대회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프라 구축…'내실'이 핵심

조직위는 일찌감치 광주U대회를 내실 있는 대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방대한 시설신축이 초래할 수 있는 운영부실을 막기 위해 ▲신설경기장 최소화 ▲기존경기장 개보수 활용 ▲도심 재건축 방식 선수촌 건설 등으로 건설비용을 줄였다. 또한 국내외 모든 마케팅권리를 확보해 대회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지난 5월 정부 재정전략회의에서 국제스포츠대회 우수재정모델로 발표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장·훈련장 등 경기시설은 총 70개소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요구하는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설 경기장을 3개로 줄였다. 나머지는 개보수 작업을 통해 기존 시설을 이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착공한 수영장(공정률 61%)과 다목적체육관(공정률 51%)은 모두 내년 3월 완공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조직위 측의 설명이다.

도심 재건축방식을 채택한 선수촌(공정률 66%)은 1만4000여 명의 선수단이 머물 35개 동 모두 골조공사가 완료돼 현재 윤곽을 거의 드러냈다. 부대·편의시설에 대한 설계는 인천아시안게임 참관결과를 반영해 오는 11월에 본격 설치공사가 진행된다.

◆자원봉사자…5년 전부터 교육

조직위는 대회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10개 분야 3만 명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비인력을 포함 6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지원자 중 5만여 명이 기본교육을, 3만3000여 명이 직무교육을, 2000여 명이 심화교육을 마쳤다.

선수단·심판진·미디어 등 참가자들의 손과 발이 될 자원봉사자의 중요성을 발빠르게 인식한 조직위는 2010년 초부터 자원봉사자 교육을 추진했다. 특히 170여 개국에서 찾아올 방문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영어를 비롯한 중국어·스페인어·불어·일어 등 유니버시아드 외국어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대회운영통합시스템…물 흐르듯 관리

광주U대회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대회운영통합시스템(TIMS : Total Integration Management System)을 구축, 경기장 및 대회운영시설에 적용시켜 원활한 대회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TIMS는 조직위의 대회운영 업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대회관리부터 경기운영·기록계측·채점·경기정보배포·대회지원 등 5개 부문 28개 세부 시스템으로 구성돼 경기운영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원활한 흐름을 도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위는 대회운영에 최적화된 통신망 제공을 위해 이중화 망 구성과 안정된 광대역 통신망도 설계 중이다.

◆서비스 '안전'에 초점

대회운영과 관련된 수송분야는 아시아나항공과 기아자동차가 후원협약을 체결해 서비스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참가 선수단에 운임할인·초과수하물 지원 등의 국제수송 관련 서비스를 후원하고 기아자동차는 선수 이동차량과 행사관련 차량 1500여 대를 후원한다.

한편 조직위는 모터풀 6개소를 지정하고 운행노선과 주차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명의 수송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수송전반에 대한 조정·심의·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회기간 중 ▲국제연맹 본부호텔 ▲심판진 빌리지 ▲미디어·운영요원을 위한 맞춤형 숙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점검 또 점검'

완성도 높은 대회를 위해 조직위는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조직위는 지금까지 작성된 현장운영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나주공설운동장에서 '현장운영 시나리오 보고회'를 가졌다.

아울러 대회 준비상황을 실전 현장에 적용한 테스트가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3일까지 유도·배구·축구·야구·핸드볼 등 5개 종목 89개 팀 1700여 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록계측 종목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4일 폐막한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15개 분야 40여 명의 직원을 파견해 실전경험을 쌓았다. 파견된 직원은 현장운영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대회 지원요원으로 종사했다.

조직위는 "현장운영 체험 결과를 분야별 현장운영계획과 운영요원 행동매뉴얼에 반영해 빈틈 없는 대회운영시스템을 마련하고 실전에 강한 대회운영 능력을 갖춰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광주U대회 홍보대사 수지

김윤석 사무총장이 축구 결승경기가 열릴 나주공설운동장에서 대회현장운영시나리오 보고회를 열고 있다(위). 66%의 공정률을 보이는 광주U대회 선수촌이 총 35개동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선수촌의 윤곽을 거의 드러냈다(아래).

광주U대회 주경기장(광주월드컵경기장).

"준비되지 않았다면 나서지 않았다"

류현진 DS 3차전 승리 자신…베테랑 래키 상대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완벽한 몸 상태로 출격 준비를 마쳤다.

7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3차전에 선발 등판하는 류현진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승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밝혔다.

류현진은 6일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중요한 경기에 선발로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준비를 잘했다.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운드에 설 생각이다"고 말했다.

부상 재발을 우려하는 현지 언론의 질문에 그는 "재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부상 이후 불펜피칭, 시뮬레이션 피칭을 하면서 몸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강조하며 "이상이 있었다면 감독님이 나를 등판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나도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 안 좋은 상태에서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류현진은 지난달 13일 경기에서 부상한 이후 정규시즌을 포기하고 포스트시즌 등판을 준비해 왔다. 불펜피칭(9월 29일)과 시뮬레이션 피칭(10월 2일)으로 몸 상태를 확인했고, 다시 불펜피칭(4일)을 하며 모든 구종을 테스트했다.

다저스는 5전 3승제 디비전시리즈에서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를 내세우고도 1차전을 내줬다가 잭 그레인키의 활약 덕택에 2차전을 잡고 1승 1패를 만들었다. 3선발 류현진의 활약에 따라 포스트시즌의 흐름이 결정된다.

류현진의 상대는 베테랑 우완투수 존 래키(36)다. 래키는 메이저리그 경력 12년에 올 시즌 14승 10패, 평균자책점 3.82를 기록했다. 객관적 전력만으로는 류현진(14승 7패, 평균자책점 3.38)과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 통산 포스트시즌 출전 경력이 19경기에 이르는 래키는

류현진이 6일 부시스타디움에서 캐치볼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왼쪽). 류현진과 상대할 세인트루이스의 선발투수 존 래키가 등판 하루 전인 6일 부시스타디움에서 훈련하고 있다.
/AP 뉴시스

2002년과 지난해 두 차례 월드시리즈 우승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류현진은 부담보다 자신감을 갖고 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진출 후 첫 포스트시즌 등판이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디비전시리즈에서 3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지만, 세인트루이스와의 챔피언십시리즈에서 호투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7이닝 동안 3안타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한국인 투수 사상 첫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승리를 따냈다.

지난해는 홈인 다저스타디움에서 경기했지만 올해는 부시스타디움에서 원정 경기를 치른다. 하지만 올해 원정지에서만 10승 4패, 평균자책점 3.03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적지에서 경기하는 것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팅리 감독, 포수 A.J. 엘리스, 주포 맷 켐프 등 코칭스태프와 동료의 강한 신뢰를 받고 있는 류현진은 "다들 믿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시즌 때 부상으로 마운드를 많이 지키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있다. 포스트시즌에서는 '팀이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손흥민 국가대표로 '손세이셔널'

파라과이·코스타리카 평가전에 출전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22·레버쿠젠·사진)이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을 위해 귀국했다.

손흥민은 '슈틸리케호' 소집 훈련을 위해 6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날 공항 인터뷰는 하지 않고 서둘러 입국장을 빠져나간 손흥민은 7일 파주 NFC에 합류할 예정이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과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손흥민은 "별 얘기 없었다"는 말만 남겼다.

슈틸리케 감독은 최근 "손흥민이 어린 선수이지만 빅클럽에서 선발 출전하는 것 자체가 재능을 입증한다"며 "우리가 필요할 때 그가 최고의 컨디션이기를 바란다"고 말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달 슈틸리케 감독은 독일로 건너가 손흥민과 홍정호(25·아우크스부르크)를 만나 몸 상태 등을 점검했고, 손흥민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22명의 대표팀 명단에 미드필더로 이름을 올렸다.

레버쿠젠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은 손흥민은 이번 시즌 6골을 기록 중이다. 독일 분데스

리가와 독일축구협회(DFB) 포칼컵·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와 본선에서 모두 골 맛을 봤다.

손흥민은 오는 10일 파라과이, 14일 코스타리카와의 친선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호날두 개인통산 22개 해트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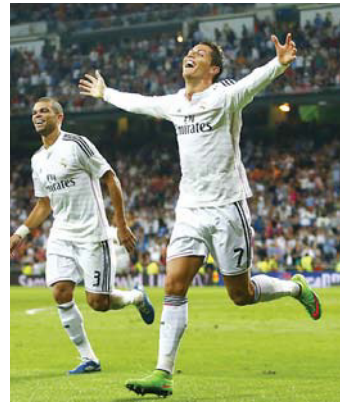
프리메라리가 최다 타이

'골잡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9·레알 마드리드·사진)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서 또 하나의 대기록을 작성했다.

호날두는 6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프리메라리가 7라운드 홈경기에서 세 골을 터뜨리며 해트트릭을 만들었다. 호날두는 이로써 지난 2009-2010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총 6시즌 동안 프리메라리가에서 개인통산 22번째 해트트릭을 작성했다.

호날두는 최근 5경기에서 세 차례 해트트릭을 작성하는 등 폭발적인 골 감각을 자랑하고 있다. 그는 올 시즌에 벌써 13골을 터뜨렸다. 리그 20개 구단 가운데 바르셀로나(19골)·발렌시아(17골)·세비야(13골)·레알 마드리드(25골)를 제외한 16개 구단의 전체 득점보다 많다.

호날두는 현재 프리메라리가 171경기에서 190골을 터뜨렸으며 이같은 득점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리그 역사상 가장 빨리 200골 고지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의 해트트릭과 함께 가레스 베일·카림 벤제마의 연속 골에 힘입어 발비오를 5-0으로 완파했다. 호날두는 전반 2분 베일의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 선제골을 뽑았고 전반 10분에도 베일의 크로스를 추가골로 연결했다. 4-0으로 앞선 후반 43분 페페의 어시스트로 한 골

을 추가해 자신의 해트트릭과 레알 마드리드의 대승을 완성했다.

한편 호날두의 이번 해트트릭 기록은 알프레도 스테파노(전 레알 마드리드)·텔모 사라(전 빌바오)가 작성한 이 부문 최다와 타이를 이룬 기록이다. 호날두와 경쟁하는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는 19개의 기록으로 호날두의 뒤를 바짝 따르고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kt 올 가을이 중요하다

내년 1군에 진입하는 신생 kt 위즈가 고민에 빠져있다. 올해 1군 진입 2년 만에 4강 돌풍을 일으킨 NC의 뒤를 이을 것인지 주목되지만 전력 강화에 차질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144경기를 어떻게 버틸지 우려된다.

9구단 NC의 전력보강을 살펴보자. 외국인 투수 3명을 보장받았고 신인지명에서 2년 동안 각각 우선지명과 특별지명을 행사했다. 기존 구단에서 특별지명으로 1명씩 수혈했다. 2011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친 2차 트래프트와 자체 트라이아웃. 마지막으로 FA 선수까지 영입했다. NC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kt의 취약점은 바로 돈이다. kt 그룹이 몸집을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분위기에서 수 백억 원을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10승이 가능한 외국인 투수 몸값은 100만 달러가 족히 넘는다. 기존 구단 특별지명을 하면 90억원을 주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FA 수혈이다. NC는 2년에 걸쳐 이호준·이현곤·이종욱·손시헌을 각각 영입했다. 이현곤은 제 몫을 못했지만 세 명은 4강 기적의 동력이었다. 이들은 팀 전력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팀의 문화를 만들었다.

올해는 FA 대어들이 많다. 내야수 최정, 외야수 김강민, 투수 윤성환·안지만·장원준 등이 시장에 나온다. kt에게는 팀의 전력을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재목들이다. 그러나 두 명만 데려와도 100억이 넘는다는 점에서 고민이다.

여기에 NC의 돌풍에 놀란 기존 구단이 kt 지원에 인색해하는 분위기까지 겹쳐있다. 올해는 2차 트래프트도 없다. 144경기를 하려면 많은 인원도 필요하지만 간판선수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 신생구단 kt의 이번 가을행보가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OSEN 야구전문기자

프로야구 전적 6일

■잠실

팀				R
NC	000	000	000	0
LG	000	000	001	1

△승리투수 = 신재웅(8승 3패) △패전투수 = 손민한(4승 4패)

■문학

팀				R
한화	000	000	001	1
SK	500	005	01X	11

△승리투수 = 여건욱(3승 3패) △패전투수 = 앨버스(6승 12패) △홈런 = 김강민 15호(6회2점) 박정권 26호(6회1점·이상 SK)

■대구

팀					R
두산	000	001	000	04	5
삼성	000	001	000	00	1

△승=이용찬 △패=임창용